

보다
BO DA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부평구문화재단

BODA 2016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vol.03

부평구문화재단
Bupyeong Cultural Foundation

보다
BODA

vol.03



부평구문화재단



바라보며 자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라도 편안히 찾아와
즐겁고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령층을 아우르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어깨를 들썩이는 흥겨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 년 내내 문화에 대한 향유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체험이 가능한 곳,
아이들이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곳,

부평구문화재단입니다.

contents

BODA vol.03

시선



04

MAN FROM ART
공공극장에서 펼쳐는
우리 설화
연출가 이병훈

생각



08

ART THINKING 1
미래도시 부평,
'부평 음악·융합 도시 포럼'에서
길을 찾다

20

LOOK INSIDE
예술과 문화산업의 미래
기술의 예술화, 예술의 기술화

인사이드 부평



30

VIEW FINDER 1
부평의 밝은 미래를 노래하다
2016 부평솔아솔아음악제

42

ZOOM IN 2
부평영아티스트로
살아가는 법 -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열정 있게

미리보다



56

WHAT'S NEXT?
부평구문화재단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외

INFO



69

INFO

12

ART THINKING 2
2016 상반기 부평문화포럼
모두 함께 만드는
'부평 생활문화센터'

24

LOOK AROUND
지역 사회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스토리텔링 하는
아카이브

34

VIEW FINDER 2
연극인 재교육 프로그램
"당신, 자기 몸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까?"

46

ZOOM IN 3
2016 사랑방인형극단
모두를 위한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의 인형극

62

CALENDAR
부평과 함께하는
2016 에스파나아리랑 외

16

ART SCENE
남이섬 사운드페스티벌,
남이섬 노래박물관

38

ZOOM IN 1
'브런치 콘서트'
음악이 만난
미술, 문학, 애니메이션

50

NEWS
공감 共感,
특독 talk talk 외



공공극장에서 펼치는

우리 설화 이야기

부평아트센터 창작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
연출가 이병훈이 펼치는 꿈

인터뷰 이병훈(연출가), 윤종강(평론가)
정리 편집부
사진 전석병

푸르른 하늘 아래 / 구름도 두리둥실
산을 넘고 넘어 / 강을 건너
가자 가자 / 멀고 먼 길
서천꽃밭 찾아가자

<할락궁이의 모험>은 어딘가 친근하고 신비한 할머니,
'생불할망'이 등장하면서 시작된다. 생불할망은 객석에 앉은
아이들에게 '서천꽃밭' 노래를 한 소절씩 가르쳐주고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공연의 길을 튼다. 이내 큰 음악 소리와
더불어 출연배우들이 객석에 깜짝 등장해 길놀이를 펼친다.



배우들은 금세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실 어린이공연 중 공공극장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설화
이야기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할락궁이의 모험>은 고유의 설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려낸
판타지 모험극이다. 극을 펼치는 배우와 관객이 극에 동참해
박수 치며 노래하고 춤추고, 또 눈물도 흘리는 공감의 작품이다.
그래서일까, 어린 관객들은 극장 안 전체를 무대로 인식하고
공연에 몰입한다.

이 공연은 무대에 올리기 어려운 스펙타클한 배경과 스토리를
한국적인 무대연출과 국악 연주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무대에서는 '서천꽃밭'이 그려진 두 쪽의 병풍이 서로
합쳐지거나 분리되면서 다양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볼 수 있다. 연출가의 재치와 상상력이 공명해지는
대목이다. 의도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무대 장치가 아닌
관객이나 배우가 상상력을 가미해 무대를 만들어나가는
시도로 볼 수 있겠다. 1시간 남짓 관객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할락궁이의 모험>은 비단 아이들이 아니라 성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수준 높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무기 천년장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아빠를 찾아 멀고 험한 길을 떠나는
'할락궁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할락궁이의 모험>은 연극계의
거장 이병훈 연출가의 작품이다. 이병훈은 연극 <홀스토포르>,
<리어왕>, <맥베스>, <손님> 외 다수의 연출을 통해 서울
극평가그룹특별상,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과 작품상, 연출상
등을 수상하는 등 연극 연출계의 거장으로 자리하고 있다.
<할락궁이의 모험> 공연 내내 이병훈 연출가의 "좋은 예술은
단순하고 깊으며 위대하다"는 예술 철학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었다.

<할락궁이의 모험>은 이무기 천년장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떠난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에서 만난 아빠가 건넨 '피살이꽃', '살살이꽃',
그리고 '꽃살이꽃'으로 엄마를 살려내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2016 문예회관 공연기획 프로그램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을 축하하다

윤 <할락궁이 모험>이 부평아트센터에서
어린이 콘텐츠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로 3년째 공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 설화, 우리 음악이 정착된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작게나마 이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신화를 어릴 적부터 무의식
속에 저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통은 우리 음악과 춤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즐기면서 몸으로
배우는 식으로 형성됩니다.

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문예회관 공연기획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것은 좀처럼 드문 일입니다.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이 부평구문화재단 박옥진 대표님께서 오래전부터
'어린이에게 신화나 우리 음악을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 설화를 생각하다가 그 중 제주도의



설화에 극적이 요소가 많다는 것에 착안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도전해 볼 만했습니다.

윤 설화나 신화를 알리는 게 의미는 있지만,
표현이 어렵습니다. 어떤 연출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강조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신화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한 장르입니다. 뮤지컬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주기 위해
놀이적인 요소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각자의 생각으로
극에 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잘 짜인 구성으로 극적 감동을
제공하기보다 관객 스스로 공연을 만들어 각자 서로 다른
감동을 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보자기 문화, 보자기 연출로
한국적 지혜를 무대에 녹여내다

윤 무대에 사용된 소도구들도 인상적이었지만
두 개의 병풍만으로 여러 재미난 장면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재치에 놀랐습니다.

이 한국적인 연극 문법은 '보자기 문화'로 통합니다. 서양은
거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공간 자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밥상이 들어오면 식당, 요강이 들어오면
화장실이 되는 것처럼 한 공간 내에서 다양한 공간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 원리를 작품에 녹여냈습니다. 단순한 것이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법이지요. 또한,
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동원하게 하는데 이는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두 개의 병풍이 만들어내는 무대는 조상님들의
지혜에서 배운 것이라 해도 과언 아닙니다.

윤 이 창작극을 위해 특별히 배우들에게 요구한 점은
무엇인가요?

이 어린이 연극은 템포가 빨라야 합니다. 아이들은 감각으로
느끼기 때문에 논리적인 생각보다 감각적인 템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템포를 주문했어요.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이고 생각하라는 것이었죠. 또
어린이의 상상력을 위해 연기, 움직임들을 창조적으로 만들
것을 배우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극에서 사람의 몸은 가장
중요한 설득 도구가 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배우는 위기를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육체적으로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배우의 신체가 개입됨으로써
더 많은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으니까요.

윤 주인공인 '할락궁이' 배우가 교체되었습니다. 단기간
역할 수행이 가능한 것은 혹독한 신체 훈련 때문인가요?

이 물론 혹독합니다. 기본 템포감을 빨리 습득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우리나라 연극의 템포는 대체로 느립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기 때문인데, 느린 템포에서는
자기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상황에 몰입되면 결코
느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통이 가진 좋은 점을 통해
한류 콘텐츠 개발을 꿈꾸다

윤 국악이 가미된 연극이나 공연 등은 쉽게 볼 수 있지만
<할락궁이의 모험>처럼 다양한 국악 연주자들이
라이브로 공연 스토리를 끌고 가는 것은 흔히 볼 수
없습니다.

이 일반 어린이 연극은 관례상 연주자가 한두 명이거나
녹음된 곡을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저는 관객이 극장에
오는 이유는 눈앞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또 생소리를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연주를 고집했습니다.
공연은 날 것 그대로여야 가치가 있습니다.

윤 특별히 어린이극을 보는 부모나 어린이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을까요.

이 현대의 어린이들은 어려움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어린이가 모험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초자연적인 신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보이는 인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병훈
연극연출가

보이지 않는 신도 존재한다는 것, 자연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통 설화를 통해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이 모험을 이겨낼 수 있는 독자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윤 <할락궁이의 모험>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아온
작품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으신지 포부와
기대를 말씀해주십시오.

이 미국의 디즈니에 버금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오랫동안 사랑받는 공연을 했으면 합니다. 백조의 호수가
1000번을 공연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할락궁이의
모험>도 해를 거듭해 완성을 향해 끊임없이 가다 보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작품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지난 3년의 세월이 기초가 되어 정리하고
다듬다 보면 에센스만 남게 될 것이고, 이후 더 단순해지고 더
강력해지면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닌 공연으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이야기는 미흡합니다. 점점 이야기를
다듬고 완성도를 높이고 여러 매체를 통해 표현하고 싶습니다.
전통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갈 때
한류 콘텐츠로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윤종강
음악평론가



미래도시 부평, '부평 음악·융합 도시 포럼'에서 길을 찾다



부평문화재단은 부평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의 장으로서
특색있는 전시와 공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더해
지역 문화의 계발과 창조에 대해 시민들과 지혜를 나누고
함께 배우고 고민하는 기회를 여러가지로 제공하고 있다.
부평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포럼이 그 대표적 예로 지역 문화예술
창조 분야의 리더들과 차세대 아티스트들,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창출하는 창조적 토론의 장으로 활용된다.

글 편집부
사진 전석병

지난 6월 9일 부평1동 주민센터 문화마당에서 '2016 부평 지속가능
발전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부평 음악·융합 도시 포럼'을 열었다. 경제,
문화, 역사가 살아나는 미래도시 부평을 준비하는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 중 하나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음악·융합 도시 부평이 나아가야 할
실제적인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기획되었다. 부평문화재단과
부평구청 담당자들, 전문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포럼은
부평구의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부평의 미래
청사진을 밝히고 음악·융합 도시로서의 부평에 대한 기대와 제안을 시민
참여 토론의 형식으로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더불어 미래도시 부평과
음악에 대한 상관관계뿐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제안되고 연구되어야 하는
부평 음악·융합 도시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했다.



"오늘 포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앞으로 5년간 10~20년 지속할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소중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여름 런던으로 도시
정책 연수를 다녀왔는데
그때 30년째 런던 구도심
도시재생을 담당했던 총괄
기획자의 말이 기억납니다.
주민들과 토의할 때 20년
후 우리 자녀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함께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20년 후
우리 자녀들이 여기 남아 살기
좋은 마을을 살아가도록 지역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옥진 | 부평문화재단 대표이사



"예로부터 단오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놀이와 즐거움을 공유하는
날입니다. 마침 오늘은 단옷날로
부평의 문화를 기념하는
포럼을 진행하게 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평 음악·융합
도시는 굴포천을 중심으로 부평
공원 ASCOM 부대, 부평3동
클럽들이 있던 곳을 음악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때에 전문가들과 꿈을 공유하고
현실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홍미영 | 부평구청장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박옥진 부평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전문가들과 꿈을 공유하고 현실화하는 기회로
삼아 20년 후 우리 자녀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과
지역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을 각각 천명했다.

부평 음악·융합 도시 포럼은 '음악 중심의 문화도시를 열어가는 부평'을
주제로 정문식 이사장과 추미경 대표의 발제 이후 이영범 교수(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박준홍 대표(사운드네트워크)와 유세음
대표(세움)가 함께하는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참석한 정문식
이사는 "부평 음악·융합 도시 계획의 성공 조건으로 대상 지역에
적합한 '지역성'과 주역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자생성'을 꼽았다. 또한, 행정 주도적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거버넌스로서 자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추미경 대표는 "부평구가 문화도시 비전으로 삼고
있는 음악·융합 도시는 부평의 근현대 자원을 잘 해석, 특화하고 있지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부평 중심에서 시민이 만드는 부평 이야기에
주목해야 한다. 부평 시민들이 처음부터 음악·융합 도시 전체 과정에
들어와 함께 논의하고 그들의 일상적 삶에 부평의 음악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평구는 작년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된 이후로 4회에
걸쳐 관련 포럼을 진행한 바 있는데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부평 음악·융합 도시 부평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정문식 이사장은 부평 음악·융합 도시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현하며
부평이 산업 면에서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벨트를 조성할 때,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을 이루게 되어 상인들과 주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사업 참여 수혜 대상이 될 음악
관련 주제 발굴과 조직화, 이들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한 사업 참여 유도가
전제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향후 '부평 음악·융합 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부평은 음악으로 새로운 가치가 일어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 찬
도시로서 음악 산업의 과도한 서울 집중을 극복하고, 침체기를 맞은 한국
인디음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돌파구로 자리할 것을 기대해본다.

부평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부평 음악·융합 도시 계획'을 제출, 선정됨에 따라
부평문화재단 주관하에 2020년까지 5년간 국비 포함 총 37억5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평아트센터, 부평아트하우스,
부평3동 유희 공간, 굴포천 복개지역 주변, 캠프마켓을 연결하는 문화벨트
조성, 음악을 핵심 키워드로 생산·연구·지원·소비기능이 융합된 선순환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의 변화과정을 바탕으로 바라본 부평 음악·융합 도시 계획의 지역성, 자생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정문식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부평 음악·융합 도시는 지역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성해야 중북 투자가 아닌 부평만의 음악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역성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주관하는 자생성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지만 문화도시 사업이나 문화재생 사업이 유효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속제에는 부평만의 정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평은 문화벨트로 조성될 예정인데 하드웨어적인 접근보다는 공간에 상주하며 그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상호 소통, 네트워킹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제안합니다. 산업적 영향력을 강화했을 때 지역 산업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고 외부에 음악산업 관련 주체들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평 음악·융합 도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악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것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향후 부평 음악·융합 도시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이에 걸맞은 가치가 부여될 때, 외부로 가치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역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명범 부평의 내부화된 고민을 짚어보는 의미에서 박준홍 대표와 유세울 대표를 지정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부평에서 문화도시 성공을 꿈꾸기 위해 꼭 짚어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음악 산업 현장의 전문가로서, 공연자로서의 지속가능한 방법 등을 토론해주셨으면 합니다.

좌장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박준홍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도시 정책은 전문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어 이전의 순수예술의 정책을 적용하기에 수립단계에서부터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수예술은 정책을 만들 때 지원 위주의 정책을 마련해 예술가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프레임만 잘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영화나 대중음악은 생산자,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산업 영역 아래 판매, 매체, 교육 등 중간 유통 인구가 많습니다. 이에 유통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부평 음악·융합 도시 사업은 도시재생프로젝트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지원이 아니라 산업진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정책의 성과지표도 다시 책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활한 음악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영역 정책사업에서는 민간 영역 배려를 해야 합니다. 사운드네트워크 대표이사



유세울 부평 음악·융합 도시가 음원 유통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확장되면 부평은 녹음과 음원 활동으로

새로운 브랜드 파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아티스트들도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음악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행 주체인 관련 행정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실무자들이 담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무자들이 예술가들에 대한 이해를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작소 세움 대표

이명범 부평이 음악도시로서의 지역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뮤지션이나 유통 관련된 사람들이 애정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홍대는 특별한 지역성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산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평이 홍대 정도의 장소성, 브랜드화 가치가 각인되려면 단기적 성과와 행정이 지원보다는 긴 안목으로 부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의 산업지구 개념이 오늘날 신산업지구 개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산업지구는 기존 산업지구와는 차이가 컸는데 도시와 격리된 상태인 산업지구와 달리 실리콘밸리 벤처기업 형태의 산업기반이 도시에 들어오면서 도시에 일상생활 속 엔터테인먼트까지 제공해주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대가 가지고 있는 장소적 가치,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예술 가치를 사회가 지급하는 신뢰를 부평이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연옥 부평이 음악·융합 도시가 되려면 가시적 성과에 앞서서 부평이 문화적 분위기와 정서에 젖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세계의 타 도시나 사례에 대해 알고 싶고 이런 스타일이 부평과 비무러지는 방법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부평3동 주민

유세울 저희는 작년 오사카축제, 가나자와 제즈 페스티벌, 에든버러 축제, 워싱턴 다씨 페스티벌 등에 참여했습니다. 오사카축제와 가나자와 제즈 페스티벌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관광객 등 외지인보다 상인들이 먼저 즐기는데 스스로 기금을 모으고 홍보활동을 하고 일주일 내내 한마음이 되어 즐기는 축제입니다. 에든버러 등 유럽의 축제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관람객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누구나 공연을 볼 때 관심 있는 것이라면 마음을 열고 관람합니다. 예술에 대한 기초 교육이 확실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부러운 점이었습니다. 부평은 학교 교육을 통해 문화 공연을 보고 즐기는 여유와 방법을 가르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미경 부평만의 문화적 분위기 정서는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로는 흔히 에든버러를 꼽습니다. 에든버러축제는 작은 축제들이 끊임없이 열리는데 도시는 축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도시의 대부분의 공간들이 축제와 관련된 일들로 채워집니다. 우리나라도 도시마다 문화적 요소가 있습니다. 홍대, 대학로 등 그 장소를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부여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평은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간파해 왔던 문화적 부분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발전시킬 것인가를 부평 주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명범 미국의 아스펜도 비근한 예가 됩니다. 원래 이곳을 은을 캐는 도시였는데 금 부위로 화제가 바뀌면서 도시는 단번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생각으로 음악을 테마로 한 도시로의 재생을 꾀해 음악 산업과 더불어 음악 교육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스펜은 매해 여름이면 전 세계의 초·중·고 학생들이 몰려들어 음악 캠프에 참여합니다. 아스펜은 음악만의 도시가 아니라 음악을 배경으로 문화적으로 재생되고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음악을 향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부평이 음악도시로 자리하게 되면 부평이 즐기는 음악 교육이 가능한 도시로 혁신되기를 바라봅니다.

정유천 부평 음악·융합 도시가 홍대 앞을 모델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홍대를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홍대를 모델로 삼는다면 부평이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평 6동 주민

정문식 홍대가 모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대는 자생성을 갖춘 음악산업을 이끄는 종사자들이 모인 유일한 사례이기에 참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대편이 중요한 만큼 이젠 로컬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평에서 음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녹음도 하고 노래도 하고 부평의 스타가 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생적으로 지역마다 있어야 할 생태계가 홍대에 몰려 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이제 부평이 홍대의 과도한 지역 집중에 대안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평, 문화적 도시로 가는 길 부평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서의 쟁점

추미경

문화다음 대표



이명범 관이 만들어 민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이 운영하는 경직성 때문에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민관협력이 잘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홍대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화가 되었습니다. 비록 부평 음악·융합 도시가 지금은 행정이 주도하지만 앞으로는 민관협력, 민민협력하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홍 음악생태계를 조성하고 원활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할 때 모바일

기업과 협력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곳과 협력사업을 하면 현재 자본과 인력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음악인의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도 있어 일거양득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BP 음악센터 계획에 있어 대중음악은 다른 장르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5년 이후 10년짜리를 세워야 하고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과지표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부평만의 다양한 음악 콘텐츠를 기획해야 합니다. 부평구에는 ASCOM 등 클럽들이 많았고 현재의 음악 콘텐츠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부평의 클럽은 당시 한국 대중음악에 끼친 영향이 많았기에 제조명해야 하는 아주 매력적인 콘텐츠입니다. 미국의 엘버트 홀의 비틀스 스토리처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야 합니다. 15개 클럽을 스토리로 묶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자국의 음악 콘텐츠로 전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국의 콘텐츠를 기획해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상업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 대중음악 100년의 역사를 ASCOM 주변 자산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사업 측면에서 풀어내는 숙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30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작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평 음악·융합 도시는 '문화도시'가 아니라 '부평' 자체에 관해 얘기해야 합니다. 부평 음악·융합 도시가 문화도시 패러다임이 진화해 온 넓은 범위를 담아내고 있는가, 문화의 도시를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가, 도시 전체를 문화로 확장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짚어봐야 합니다. 부평이 지역 안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산과 잘 만날까 하는 측면들이 고려되어야만 확장된 문화도시로서의 개념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래 심사숙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평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기업, 시민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연결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평은 음악 자원 뿐 아니라 부평이 가진 인문, 자연, 문화예술 자원, 골포천 생태자원과 연결해 음악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골포천 사업 등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도 처음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가들, 전문가들, 행정가들, 시민들의 문화적인 생각이 부평의 자산이 되지 않는다면 문화적인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달라도 이해하고 가치와 차이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만드는

부평 생활문화센터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활동과 생활문화시설을 지원하여 국민의 능동적 참여 확대와 생활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문화진흥원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생활문화진흥원 출범에 발맞추어 전국의 생활문화센터는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생활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방안 및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지점에 다다랐다.

한편 부평구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부평아트하우스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개관할 예정이다. 이에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 6월 14일(화)과 6월 21일(화), "모두 함께 만드는 부평생활문화센터"를 주제로 '2016 상반기 부평문화포럼'을 개최했다.

글 편집부
사진 전석병

이번 부평문화포럼은 부평아트하우스를 활용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지역공동체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전문가와 지역민이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6월 14일 열렸던 1회차 포럼에서는 '부평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찾기'라는 주제로 생활문화센터 정책의 흐름 및 방향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서 부평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그리고 동호회 지원방안을 발제하고 토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고영진 사무관, 문화디자인 자리 최혜자 대표, 성북문화재단 문화기획팀 유상진 팀장이 발제를 맡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선임연구위원(좌장),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임승관 대표, 유알아트 김영현 대표,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 전 부천문화재단 문화진흥팀 안태호 팀장이 각각 발제에 대한 주제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을 시작하기 전 부평구문화재단 박옥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향후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 생활문화센터가 운영될 예정으로 모든 지자체는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생력을 갖게 하는 방법, 공공지원이나 공공인력 없이도 지속가능한 공간을 운영할 방안 등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부평은 지역적 특성, 주민들의 수요나 환경을 잘 반영해 주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문화마실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라며 부평생활문화센터가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과 동호회, 시민 모두가 지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고영진 사무관(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은 '생활문화센터의 정책흐름 및 방향'을 주제로 진행해온 생활문화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문화 중심 거점으로서 자발적, 자생적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의 공간으로 자리하기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리모델링 조성 예산 지원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생활문화센터 대상 이용자 조사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도시재생지역 내 커뮤니티센터의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생활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영진 사무관은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향후 정책 과제로 생활문화센터의 성공모델 확산과 함께 생활문화에서의 지역 기반의 전문인력 육성, 센터와 동호회 등 생활문화 활동의 자생적인 운영을 언급하며 시민과 관계부처의 협업을 통해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최혜자 대표(문화디자인 자리)로 '사례를 통해서 본 부평생활문화센터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생활문화는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생활문화와 관련된 정책은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는 연습을 돕는 것임을 밝혔다. 일상의 행복이 삶의 중심으로, 지지와 연대가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존재 가치를 일구는 삶의 능력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 생활문화 공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혜자 대표는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에 대해 마주치고, 말 걸면서 이웃이 되는 장으로,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의 장으로, 일상의 주인공이 되는 장으로 자리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부평 생활문화센터도 주민 스스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공간, 계기를 만드는 곳이 되기를 바랐다.

세 번째 발제자는 유상진 팀장(성북문화재단 문화기획팀) 성남 사례 중심의 '생활문화동호회 지원방안_주민의 자발성, 자립성 확보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유상진 팀장은 부평구문화재단이 생활문화 전문가 육성, 협력, 네트워크까지 다 말할 수 없다며 유관기관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평구문화재단의 역할은 동호회들이 문화교육을 받고, 동호회를 꾸리며 발굴해내고 네트워크 시키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생활문화 활동 지원의 활동 양상은 교육을 받으면서 연습하는 단계, 숙련되는 단계, 발표하고 싶은 단계, 발표하는 단계, 그리고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접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나누는 공헌활동 단계로 구분되며 생활문화센터의 역할은 연습의 장, 발표의 기회의 장, 공헌사업을 연결하는 장 등을 지원하는 것까지 담당해야 하므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문화융성의 중요 거점으로 주목받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자생적 문화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전문가만의 예술이 아닌 지역주민이 생활 속에서 즐기는 예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사무관



"생활문화센터는 주민 스스로 환경을 조성하고 스스로 역할을 담당하고 주체가 되는 현장이기에 부평생활문화센터 역시 지역주민 스스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기회와 공간, 계기를 만드는 곳으로 사람을 발굴하고 관계를 맺게 하고 욕구를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고 성숙, 확산, 발전할 수 있는 단계적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호회 활동은 주로 작품을 연습해서 발표하는 것인데 부평구가 창작에 대해서까지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개최된 지정토론 시간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박사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는데 류정아 박사는 "생활문화센터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이라 논의가 치열하게 되지 않았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들도 제각각인데 오늘은 각각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차이점을 수렴해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후 유알아트 김영현 대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임승관 대표,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대표, 전 부천문화재단 안태호 문화진흥팀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영현 대표는 '생활문화센터의 정책 흐름 및 방향'에 대한 지정토론을 하면서 생활문화진흥원을 설립·운영하고 정책적으로 생활문화를 강조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긍정적이나 다양한 사업을 행하면서,

일반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승관 대표는 '사례를 통해서 본 생활문화센터의 역할' 부분에 대한 주제 토론을 했는데 이데올로기와 경쟁 패러다임에서는 개인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주목하여 생활권에서 일어나는 생존과 생활의 키워드에 집중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문화공간운영시스템과 철학이 바뀌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이 되며 공동의 장, 자율과 협동으로 생활 속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멈추지 않고 변화와 혁신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후 이선철 대표는 성남 사례에서 살펴본 '생활문화동호회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의 장을 펼치면서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의 규모와 지역 생태계에 따라 맞춤형 공간으로 자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는 공간에 대한 철학, 디자인적 연구 등이 선행되어야 물리적 공간의 독창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연구도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운영방식도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활문화센터는 장터도 열고, 축제도 하고, 서로 동아리끼리 대화하고 시민과 시민이 배우는 배움의 장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예술은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예술활동이 아닌 공동체 활동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상진
성북문화재단 문화기획팀장

마지막으로 안태호 전 부천문화재단 문화진흥팀장은 생활문화는 출구 전략보다는 확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생활문화센터의 동호회들이 공공영역의 지원을 졸업하고 자생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생활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팀을 발굴하고 순환하도록 거드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6월 21일(화), '모두 함께 만드는 부평생활문화센터'라는 주제로 진행된 2회차 포럼에서는 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부평 생활문화센터의 공간조성 및 운영방안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함께 논의했다. 문화디자인 자리 최혜자 대표의 진행으로 부평구문화재단 광경전 기획경영본부장이 부평생활문화센터의 함께 풀어나갈 문제들을 발표했으며 문화컨설팅 바라 권순석 대표, ACE 비빔빔 윤현옥 대표, 임승관 대표, A-Scape 박희경 소장이 포럼 참석자들과 함께 테이블별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향후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설계, 실행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모두 함께 예술

부평구문화재단

11.26~11.30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12.8~12.11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월요일 공연 없음

연출
권호성

작
김정숙

각색
이시원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대중음악 60년의 뿌리, 찬란한 음악도시 부평을 그린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 레파토리 제작개발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남이섬 사운드 페스티벌,

남이섬 노래 박물관

南 怡

남이섬 사운드페스티벌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가운데
'한국 대중음악 100년 포럼'과
노래박물관 '한국대중음악 100년 전시오프닝'
행사 등이 있어 참석했다.
부평지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부평 음악·융합 도시 조성사업과
맞물리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글 사진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팀 전용덕 팀장

한국 대중음악 100년 포럼 Vol. 1 1968~1986 언더그라운드 뮤직의 시작

포럼은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포럼의
코디네이터는 박준흥 대표(사운드네트워크)가
말았으며, 사회는 서병기 선임기자(헤럴드경제
대중문화)가, 발제는 예진수 전 문화일보
문화부장, 송명하 대중음악 평론가, 권오경
교수(백제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가 각각
진행했다. 이후 양일혁 기자(YTN 편집부),
이재훈 기자(뉴시스 문화부), 송준호
교수(서강대학교), 이대화 대중음악 평론가,
김창현 교수(단국대학교 생활음악과)와
박태웅 전 팀장(포니캐년코리아 A&R)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1부는 '1968~1975년 한국 대중음악' "금지곡
시대 그리고 음악데모크라시의 좌절"을 주제로
예진수 전 문화일보 문화부장이 발제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암울하던 시기를
재조명했는데 금지곡 발생 등의 일화와 함께
정부에 의한 검열 등에 의한 자기검열 효과로
인해 한류 콘텐츠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지곡과
검열 외 전쟁(베트남전) 등의 이유로 대중음악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부분이 제기되기도
했다.

2부는 송명하 대중음악 평론가가 '1970년대
밴드 음악의 흐름' "외부적 압력이 '오버'와
'언더'를 좌우했던 국내밴드의 역사"를 주제로
발제했다. 신문에 실린 기사들을 바탕으로
70년대 밴드 음악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그 영향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았다.
1970년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경제적인
영향으로 밴드가 해산되었다는 뉴스, 단발령
시행으로 많은 밴드가 TV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내용의 뉴스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다.
3부는 권오경 교수가 '한대수의 음악과 한국
언더그라운드 뮤직의 미래' "1997년생 예비
뮤지션들에게 묻다. 너네, 언더 하고 싶니?"를
주제로 발제했다. 권오경 교수는 미래의
뮤지션에게 한국 모던 포크와 언더그라운드





남이섬 사운드페스티벌에서 열린 ‘한국 대중음악 100년 포럼’은 1950~196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시작점인 부평의 나아갈 길과 맞닿아 있었는데 부평은 과거의 음악 역사를 스토리텔링하고 산업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음악의 시작을 알린 한대수의 음악을 평가하듯 했으며, 20대의 신선한 시각을 통해 한대수의 음악과 그 시대, 그의 음악이 가지는 의미를 찾고자 했다. 한국 대중음악 100년이라는 시간을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에 충분했다.

토론 중 현재 한국음악의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인지하고 음악이 비즈니스 형태와 결합하여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 시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계획하고 현재의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동의하는 대목이리라. 이번 포럼의 내용을 기반으로 1950년~1960년대 대중음악의 시발지인 부평도 과거의 음악 역사를 스토리텔링하고 산업화하여 밝고 풍성한 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한국 대중음악 100년 전시 남이섬 노래박물관

이튿날 노래박물관 전시 오픈 참석을 위해 다시 남이섬을 찾았다. 외관상 2층으로 보이는 노래박물관의 구조는 1층과 지하 1층에는 총 3개의 전시실과 매직홀이라 불리는 공연장이, 1층에는 어쿠스틱 연주를 할 수 있는 카페가 자리하고 있었다. 여러 방향으로 드나들 수 있는 입구들은 내부로의 접근을 편하게 만들고 있어 관객들을 배려한 세심함이 돋보였다. 노래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노래박물관이란 이름과 함께 ‘한국 대중음악 100년展 Vol.1’이라는 전시 제목이 보인다. 우측으로 돌면 호반갤러리의 입구가 보이면서 김현식, 전인권, 시나위 등의 1980년~1986년 언더그라운드 뮤직 대표음반 14선이 눈에 들어왔다. 호반갤러리 내부 전시관은 벽면 하나가 통유리로 설치되어 전시와 함께

아름다운 경치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었는데 한대수로 시작되는 포크 음악의 흐름과 신중현으로 시작되는 록의 흐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호반갤러리 전시관 내부 벽면에는 ‘청년문화와 모던포크(1970년대)’, ‘록 밴드의 전성시대 1968년~1970년대’라는 제목과 함께 그 시대 록음악이 겪었던 시대적 흐름을 화보로 전시해 놓았다. 전시관 내부 가운데 테이블에는 당시 음악 잡지와 앨범들이 전시돼 있었고 전시관 바깥쪽 복도에는 1980년대 대중음악의 흐름을 사진과 함께 설명한 패널을 만날 수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면 송아일랜드갤러리가 자리하고 입구 모니터 화면에는 한대수의 공연 메이킹 필름이 상영되고 있었다. 송아일랜드갤러리의 전시는 양쪽으로 나누어져 70, 80년대를 이끌었던 가수와 연주자들의 통기타, 악기, 포스터, 테이프, LP 등을 전시해 놓았다. 또한, 영화 ‘바보들의 행진’ 등의 영화검열대본들과 정태춘의 ‘시인의 마을’ 등의 검열 악보들이 전시되어있어 음악이 억압받던 시대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한국 대중음악의 시발지 부평과 연결하다

많은 사람이 대중음악 100년이라 하면 고개를 가우뚱거린다. 이에 사운드네트워크 박준흠 대표는 “한국에서 대중음악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것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음반이 1907년에 발매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는 대중음악이 음반의 역사와 함께한다는 논리다. 1950년, 1960년대 부평에서의 음악을 생각한다면 미군 부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당시 미국에서 유행했던 음악은 미군들이 주둔한 주한미군부대로 바로 유입될 수 있었기에 부평은 외국 음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고, 억압받던 시절 전이기에 (부대 안에서의 활동은 국내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음악을 받아들이고 음악을 함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을 것이다. 그 시절의 음악 활동에 대한 향유를 발판 삼아 성공적인 음악도시 부평을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남겨진 숙제이다.

기술의 예술화,

예술의 기술화

|
글 원광연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技術

藝術

얼마 전 케빈 켈리의 저서 <테크놀러지가 원하는 것>을 읽었다. 이 책에서 그는 '테크놀러지는 인간이 구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체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것, 더 나아가서 스스로 진화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생명체를 진화시키는 것이 자연계라면 테크놀러지를 진화,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테크놀러지는 인간의 욕망을 먹고 자란다는 것인데, 이렇게 테크놀러지를 정의하면 사실상 테크놀러지와 문화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다. 그래서 필자는 케빈 켈리에게 이메일로 문의했다. 테크놀러지와 문화의 차가 무엇이냐고.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아무튼, 우리는 테크놀러지 기반 사회에 산다. 아마 예전에도 테크놀러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사회는 없었을 거다. 다만 옛날과 현재의 차이점은 오늘날의 사회가 극도로 테크놀러지 의존도가 높다는 데에 있다. 경제, 산업, 교육,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테크놀러지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술도 예외가 아니다.

먼저, 공연예술 분야를 보자. 공연이 펼쳐지는 무대는 일종의 가상공간이다. 현실 세계와 유사하지만 현실이





아닌, 작가가 창조한 별개의 세계를, 무대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구현해 놓은 것이다. 무대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 공연자가 공연한다. 이때 공연자는 실제 인간 이긴 하지만 무대에서의 그는 그 자신이 아닌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가상 캐릭터 임무를 수행한다. 즉, '배우 = 아바타'인 셈이다. 그리고 관객은 이 가상 캐릭터들이 노니는 가상세계를 관람한다. 여태까지 이 가상세계와 가상 캐릭터는 각각 실제 무대였고 실제 인간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테크놀러지는 실제 공간과 실제 인간을 각각 디지털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무대 역시 인터넷과 VR 기술을 수용하면서 더욱 '가상화' 될 것이다. 원격의 세계, 실재하지 않는 세계를 무대 위에서 재현할 수 있게 된다. 공연자도 마찬가지다. 필요에 따라 로봇이 공연자를 대신하고 원격의 공연자가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무대 위에 오르게 된다. 결국 무대는 실제 공간과 디지털 세계가 혼합되고, 공연자 역시 실제 인간과 로봇, 그리고 원격에서 참여하는 인간들로 구성된다. 관객의 위상도 변할 것이다. 공연 작품의 감상이 일종의 VR 체험화가 된다면, 당연히 관람객은 수동적인 '관람'을 넘어 능동적인 '참

우리는 테크놀로지 기반 사회에 산다. 아마 예전에도 테크놀러지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사회는 없었을 거다. 다만 옛날과 현재의 차이점은, 오늘날의 사회가 극도로 테크놀로지 의존도가 높다는 데에 있다. 경제, 산업, 교육,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테크놀러지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술도 예외가 아니다.

여' 혹은 '체험'을 원할 것이다. 미래의 공연예술은 그 어느 예술 분야보다 더욱 테크놀러지의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

필자는 전문 예술인이 아니지만, 공연예술의 가능성을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실험해 왔다. 일찍이 1999년에 기획했던 <DNA 판타지아>라는 음악극에서는 디지털 캐릭터가 조연 역할을 맡았으며, 2007년 <신타지아>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원격의 장면을 주 무대로 끌고 들어왔다. 그리고 2012년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콘퍼런스에서는 쇼케이스의 하나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두 명의 배우가 하나의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시도를 했다. <굿바이 미스터 톰>이란 타이틀의 이 작품은 2013년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APPAC 회의에서도 선보인 바 있다. 물론 테크놀러지가 무대를 확장하고 공연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관객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떤 매체이든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다면, 예술에서의 테크놀러지의 활용은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오히려 그 한계를 특징이자 장점으로 바꾸는 예술적 창의성에 의해 판가름날 것이다.

시각예술 분야 역시 테크놀로지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일반인들에게 테크놀러지의 위력은 공연예술보다 시각예술에서 더 피부로 느껴진다. 비디오아트에서 시작해서 미디어아트, 뉴미디어아트, 디지털아트, 웹아트, 인터넷아트, 제너러티브아트 등으로 이어지는 비전통적인 시각예술에서 테크놀러지는 ① 소재의 역할, ② 도구의 역할, ③ 매체의 역할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또 다른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즉, ④ 예술가의 파트너로서 해야 할 역할, 그리고 ⑤ 예술가의 역할이 그것이다. 이미 반 고흐 스타일이나 피카소의 스타일을 본떠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음에 미루어 볼 때, 미래에는 어느 정도 자율성과 창작력을 보유한 '인공 아티스트'의 등장이 예견된다. 그러나 과연 이들 '아티스트 로봇'이 작가 정신을 가지고 고민과 고통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가는, 혹은 이런 인간적인 감정이 예술에선 빠질 수 없는 필요조건인 것은 미학적·철학적 차원에서 깊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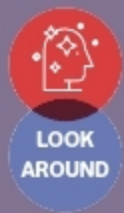
순수 예술이 그럴진대 예술을 산업화하는 문화산업 역시 테크놀러지를 피해갈 수 없다. 그렇다면 문화산업은 테크놀러지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몇 년 전 글로벌 반도체 회사인 인텔사에 초청을 받아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다. 열 명 남짓한 참가자 가운데 필자는 유일한 IT 분야 전문가였다. 디자이너, 건축가, 소설가, 사

Cosmopolis _ Maurice Benayoun_Giant interactive installation, Virtual Reality



회학자 등 반도체와는 거리가 먼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단 하나. 반도체 칩도 이제는 인간의 삶의 행태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문화 맞춤형 형태로 진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결국, 반도체 칩마저 문화상품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결국 상품의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나 기능적 가치보다 문화적, 감성적 가치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모든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화면"을 가진 TV가, "음성인식을 잘하고 터치 오류가 적은" 휴대폰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다. 상품의 가치는 감성 코드와 문화코드에 의해 정해지는 시대이다. 그리고 이 추세는 테크놀러지가 발전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듯 재화의 교환가치가 줄어들면서 문화적인 요소가 더욱 중요해진다면, 문화산업이 타 산업의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문화산업 그 자체의 중요성도 크지만 말이다.

현시대의 문화산업은 예전의 문화산업과는 큰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테크놀러지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게임 분야는 말할 것 없고 영화산업도 CG를 이용한 특수효과가 멜로드라마에서조차 사용될 만큼 일반화되었고, 3D를 넘어 4D, 5D 등, 그야말로 기술의 집합장이 되고 있다. 이 경향은 더욱 가속될 거로 예상된다. TV는 방송산업과 통신산업 간에 융복합을 더욱 촉진하면서 대중에게 더 높은 '가상체험'을 제공할 것이고, 전자책은 출판산업 구조는 물론이려니와 책의 본질적 정의마저 바꿀 것이며,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가까운 미래에는 초고속 인터넷과 가상현실 기술이 문화산업은 물론 예술 분야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문화기업들은 기술 기업화하고 있고 기술기업들은 문화 기업화되고 있다. 애플, 구글 등은 말할 것 없고 앞서 언급한 인텔과 같은 전형적인 기술회사조차도 문화를 접목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필자는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을 융합하는 프레임을 CT(문화기술)라는 용어로 제시한 바 있다. 예전 아날로그 시대에는 기술과 문화를 분리하여 다루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디지털 시대에 들어 기술과 문화가 융합되고 미디어와 콘텐츠가 융합되는 시대에는 예술-테크놀로지-문화산업-소비/향유-재투자의 사이클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하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지역 사회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스토리텔링하는

아카이브

| 글 지가은 (meetingroom 에디터)
미팅룸(meetingroom)은
큐레이팅과 아카이브, 작품보존수복에 관한
지식 및 정보공유에 집중하는
온라인 큐레이토리얼 리서치 플랫폼이다.

Whitechapel Gallery

Asia Art Archive

Camden Arts Centre

본래 '아카이브(Archives)'는 조직이나 기관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 영구히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물' 그 자체 또는 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인 '기록관'을 뜻한다. 기록물과 보관소를 동시에 지칭하는 아카이브는 그래서 보관 대상의 내용물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형식과 체제의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한 사회가 아카이브를 다루는 방식에서 그 사회의 역사 인식과 기록 문화에 대한 태도를 짐작하고, 이 기록 가치를 토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적 통찰력까지 엿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술 아카이브는 개인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나 기관의 예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 중에서 영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수집한 것이다. 예술가의 창작 과정이나 의도, 은유가 반영된 이 기록물들은 대부분이 유일한 원본 자료로 사료 가치와 연구 가치가 높다. 주로 예술가 자신이(혹은 관련 지인이나 단체가) 생산하고 수집한 기록으로 예술가의 생애나 창작 활동에 대한 미술사적 평가와 작품의 미래 가치 결정에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예술가의 성향이나 생활 환경, 인맥, 업무, 사회 활동과 같은 사적, 공적 활동이 모두 담겨 있다. 한 예술가의 개성과 특징을 드러내는 이러한 개인 기록은 작품 이전의 이야기들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기록이 생산될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정황도 보여준다.

주로 '관계자 외 출입 제한 구역'으로 상징되는 기록물 보관소, 즉 아카이브의 권위와 통제의 폐쇄성이 가장 먼저 유연해지기 시작한 곳이 아마도 예술 영역일 것이다. 변화의 바람은 기존 아카이브 체제에 대한 예술가들의 반문과 도전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자신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과정과 결과를 창작 모티브로 삼거나, 기관 아카이브에 개입하여 그 내용을 재해석하는 스토리텔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도 하고 아예 새로운 형식과 분류 방식의 대안적인 아카이브를 제시하기도 한다. 전통적 개념의 아카이브를 전복하는 일련의 예술적 행위들은 기존 체제에 대해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지며, 현장의 예술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의 방법론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아카이브의 내부와 외부, 공개와 비공개, 관리자와 이용자라는 엄격한 경계를 흔드는 시도를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즉, 예술 아카이브가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보다는 공유를, 일방적 정보 제공자보다는 교류를 통한 협업을 추구하며, 거대서사의 확립성보다는 작은 이야기들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새 지평도를 그리고 있다는 뜻이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는 이러한 아카이브의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지향점을 여러 해외 사례에서 확인해보자.

런던 동부의 화이트체플갤러리(Whitechapel Gallery)는 현지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아카이브와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만드



화이트체플갤러리 아카이브 리딩룸 전경 ' Photo by Gavin Jackson

는 기관 중 하나이다. 화이트체플갤러리는 지역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지역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립미술관으로, 지역 내 다문화 배경과 공생하는 현대미술의 비전 제시 및 교육을 목표로 했다. 처음부터 '열린 구조의 공유'를 표방한 미술관의 설립 취지는 2009년 미술관이 재개관 공사와 함께 아카이브 운영을 본격화할 때에도 반영되었다. 이때 리딩룸과 전용 갤러리를 신설하였고, 아키비스트와 아카이브 큐레이터를 고용했다. 아키비스트가 기록물을 수집, 정리, 분류, 기술하고 이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기록관리전문가라면, 아카이브 큐레이터는 기록물 콘텐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전시와 제반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획자이다. 화이트체플갤러리는 이 두 전문가의 긴밀한 협업 아래, 기본적인 열람 서비스 제공 외에도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정기 기획전을

선보인다. 전시는 기존 자료의 연대기순 나열을 지양하고 아카이브에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여 과거의 기록을 스토리텔링하는 역동적인 구조를 지향한다. 화이트체플갤러리와 지역 사회가 함께 걸은 역사적 장면들, 이곳을 거쳐 간 예술가와 작품들의 이야기 속에서 건져 올린 파편들은 또 하나의 작품으로, 전시로 재직조 된다. 자료의 직접적인 재구성 외에도 '아카이브' 개념 자체에 대한 비판적 화두를 던지는 예술가의 작업을 선보이기도 하고, 외부 연구자나 큐레이터를 초청해 공동 기획을 하는 유연성도 발휘한다. 또, 아키비스트와 큐레이터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간의 업무와 역할을 이해하고 협업 가능성을 토론하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

교류의 통로이자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대



화이트채플갤러리 아카이브 기록 전시 ' Imprint 93 (2016년 3월 19일~9월 25일) 전시 자료 일부 ' Photo FluxKit ' Courtesy Myanmar Art Resource c.1993-1997_Courtesy of the artists 움직이는 도서관 프로젝트 ' 미얀마 2014 ' Photo FluxKit ' Courtesy Myanmar Art Resource Center and Archive (MARCA)

표적인 곳으로는 홍콩 아시아 아트 아카이브(Asia Art Archive, 이하 AAA)도 빼놓을 수 없다. 리서치 기관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AAA는 서양 편중적인 미술사 서술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시각으로 아시아 미술사의 쓰이지 않은 틈새를 채워간다는 목표 아래 설립되었다. 실질적인 정보 부족으로 인해 아시아 현대미술의 위상이 저평가되기에 심상이고, 그 기록 방법이 한 국가의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기에는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물리적인 기록과 보관 기능을 넘어서는 능동적이고 통섭적인 아카이빙 방법론을 연구하고 관련 활동에 주력한다. 이들은 아시아라는 광범위한 권역의 미술사 모두를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는 불가능한 총체성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리서치 프로젝트 단위의 아카이빙 집중화 전략을 취한다. 특정 시기, 장르, 인물, 지역, 커뮤니티에 파고들어 관련 자료의 수집과 목록화, 연계 연구, 토크, 전시, 출판, 디지털화 작업까지 진행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홍콩미술관과 함께 전시와 교육, 비평을 중심으로 한 홍콩미술계의 국제 교류사

아시아아트아카이브 도서관 전경 ' Courtesy of Asia Art Archive



예술 아카이브는 개인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나 기관의 예술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 중에서 영구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수집한 것이다. 예술가의 창작 과정이나 의도, 은유가 반영된 이 기록물들은 대부분이 유일한 원본 자료로 사료 가치와 연구 가치가 높다.

를 짚어보는 '1960~70 홍콩 미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전에는 중국 사회의 급변기에 함께 요동쳤던 중국 현대미술의 지형도를 망라한 '미래를 위한 자료들: 1980~1990 중국 현대미술의 기록'과 같은 프로젝트도 진행했다. 또 인도 독립 후, 인도 미술교육계에 핵심적 역할을 한 바로다대학의 4인을 다룬 '바로다(Baroda) 아카이브'나, 큐레이티자 연구자, 딜러로 활동하면서 서구와 중국의 매개자로 중국 현대미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스 반 다이크(Hans van Dijk) 아카이브'도 AAA가 구축한 주요 컬렉션이다. 더불어, AAA의 '움직이는 도서관(Mobile Library)'은 베트남, 미얀마, 스리랑카 등 특정 지역에 직접 찾아가 침투하는 가장 현장성 있는 프로젝트로 꼽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도서관이나 아카이브 제반 환경이 빈약한 지역이나 혹은 반대로 AAA 보유 컬렉션 중에서 자료의 빈틈이 큰 지역을 선택하는데, AAA 소장 자료가 있어야 하는 현지의 커뮤니티를 순회하며 이를 공유하고 동시에 추가 자료도 수집한다. 이 결과물이 다시 AAA 컬렉션에 축적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다양한 국가의 예술가, 연구자, 큐레이터, 아키비스트,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관계 기관과의 국경 없는 협력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지역성과 국제성 사이의 균형 맞추기가 AAA 활동의 주요 근간이 된다. 위 두 기관은 모두 아카이브 구축과 활용을 통해 기관의 정체성을 지속해서 재정립해 나간다. 그 중심에는 특히 지역사회 내의 단체, 학교, 공공기관 등 여러 층위의 소규모 커뮤니티가 참여해 만든 공동의 결과물이 있다.



Youth Collective session, 2016 Courtesy of Camden Arts Centre ' Photo © Hydar Dewachi

같은 맥락에서 지역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는 런던 북부의 캠던아트센터(Camden Arts Centre)가 있다. 센터는 개관 당시부터 지역 사회의 미술교육 기관으로 출발해 점차 지역 예술가와 학생 그룹의 중심지가 되었다. 지금은 다국적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국제적 기관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전시와 교육에 같은 비중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는 작년에 개관 50주년을 맞이했는데, 일 년동안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리빙 아카이브 프로젝트(Living Archive Project)'는 지역의 자원봉사자들과 청년 그룹이 이끄는 아카이브 워크숍 및 전시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다루는 자료는 각종 전시 기록, 아티스트 북, 메뉴스크립트 등 설립 시기부터 현재까지 센터의 역사를 담은 원본 자료들로, 참여자들은 자료를 직접 선별하고 선정한 주제에 따라 스토리텔링 한 결과물을 전시로 보여준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15~25세의 청년 그룹은 앞으로 지역 사회를 이끌어 갈 세대이다. 여기에는 센터가 걸어온 과거의 이야기들을 이 지역의 미래 세대가 현재의 시점에서 직접 되짚어보고 재구성해 봄으로써 센터의 미래상을 스스로 엮어간다는 속뜻이 담겨있다. 아무리 거창한 규모와 범주의 아카이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한 개인에서 시작해 그 가족이나 주변 인물, 관련 단

체와 기관, 그가 몸담았던 지역 사회의 자취들이 깃들여 있다. 흩어져 있던 사소한 이야기나 한 줄의 기록이 한데 모여 차후 어떤 이야기를 써 나갈지, 후대의 기억과 역사 쓰기에 어떤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게 될 지에는 무한한 가지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그러한 잠재성을 쌓아 올리는 일은 단시간에 성과를 뽑아내는 속도전으로는 이룰 수 없다.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일은 그 아카이브가 뿌리내리게 될 지역과 범주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문제의식 아래, 전문성과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매우 곤란한 장기전이다. 무엇보다 구축과 활용이라는 두 축의 톱니바퀴가 단단히 맞물리면서도 유연한 리듬감을 내며 굴러가려면, 이 두 바퀴의 순환적인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아카이브는 과거 사건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고정된 체계라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움직여가는 유기체와 같다. 앞선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술가나 기관의 창작 활동 산물이 아카이브에 귀속되면 그 기록물들은 이후에 또 다른 창작물의 밑거름으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예술 아카이브의 기록이 화석화된 기억으로 남지 않도록 그 사료적 가치와 의미를 반복적으로 재탐색하고, 그 틈과 균열로부터 미끄러져 나오는 파편들을 매 순간 새로운 반복으로 만드는 힘은 이에 개입하는 예술적 공감과 창의성에 달려있다.



인사이드 부평

그곳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흥을 깨우는 공연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들
그리고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세밀한 교육들.

예술과 문화, 생활의 만남을 주선하는
부평아트센터의 변신은 끝이 없다.

Viewfinder

부평 솔아솔아음악제
연극인 재교육 프로그램

Zoom In

음악, 예술과 만나다 '브런치 콘서트'
부평영아티스트와의 만남
부평문화사랑방 '사랑방인형극단'

News

2016부평구문화재단 직원 워크숍
BUKIF 어린이그리기대회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드림 시민회원 출범식 개최
상주단체





부평의

밝은 미래를 노래하다

2016 부평솔아솔아음악제

취재 편집부
사진 전석병

우리 민족은 지치고 어려울 때 노래했다. 노래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이뤄내기도 하고, 큰 뜻을 함께하는 물결이 되어 시대를 이끌기도 했다. 특히 1970년, 1980년대의 민중가요가 그러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함께하는 것이 많이 아쉬운 지금, 부평에서 시작한 '솔아솔아음악제'에 눈길이 가는 건 지나간 '청춘'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넘어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 부평의 행복하고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

“음악이 다리가 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생각과 생각을 잇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부평의 음악 역사를 대변할 뮤지션들이 꾸미는 이번 행사에서 노닐듯이 거닐듯이 푸르렀던 그 날의 청춘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부평문화재단 박옥진 대표이사의 말처럼 이번 음악제는 참가자들에게 청춘을 발견하게 하고 추억과 함께 노닐고 거닐었던 시간이었으며, 지역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부평 음악-융합 도시' 조성사업의 큰 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시간으로 기억된다.

음악도시 인천의 핵심공간이 된 부평아트센터,
시민과 함께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5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은 “2016 부평솔아솔아음악제”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경인방송 라디오 공개 방송을 겸하여 열린 이날 행사는

부평구문화재단 직원과 경인방송국 스태프 그리고 부평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참가해 각자 맡은 자리를 지켰다. 띄약벌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무대 앞자리를 차지한 시민들의 얼굴은 행사에 대한 큰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인천 소성주 막걸리 협찬과 함께 부녀회에서 만든 안주는 판매와 동시에 불우이웃돕기로 기부되는 가슴 따뜻한 행사도 이어졌다. 주최 측에서는 햇빛을 가리는 모자, 부채, 물을 시민에게 제공해 갑작스러운 불볕더위에 대처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열정적인 무대, 부평으로부터, 부평을 노래하다

본격적인 음악제에 앞서 부평구립풍물단이 풍물놀이로 길을 열었다. 2007년에 창단되어 제8회 수원화성주부국악제 전국대회 타악기 부분 장원을 수상하기도 한 부평구립풍물단의 흥겨운 풍물놀이 한마당을 접한 시민들은 우리 가락과 박자에 호응하면서 어깨를 들썩였다. 이후 본격적인 음악제가 시작되고 시민들은 뜨거웠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듭되는 연주와 노래를 들으며 옛 추억에 빠져갔다. 드디어 음악제 1부가 부평지역 연주인들을 중심으로 한 실력 있는 노장들로 구성된 부평구의 대표적 문화사절단, 부평 올스타 빅밴드의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청명한 하늘을 배경 삼아 유쾌하고 밝은 연주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시원하게 했다. 이후 부평구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구성된, 아름답고 세련미 넘치는 음색과 신비로운 화성을 자랑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아마추어 합창단인 부평구립여성합창단의 합창 이후, 문화공작소 세움의 브라운 에일이 우리나라 곡조와 의상을 녹여낸 노래를 열창하여 심금을 울렸다. 2부 공연은 우리에게 친숙한 유명 뮤지션들의 공연으로 새롭게 채워졌다. 블루스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인정받는 한국 블루스의 대표주자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노래한 김목경 밴드, 드라마 <시그널> OST에 참여한 실력 있는 뮤지션 조동희, 상업적인 성공이 어려운 민중가요임에도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민중가요의 발자취를 남긴 '노래를 찾는 사람들', 1999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대중예술부문에서 수상하고 '광야에서' '내가 만일'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등으로 현재까지 8개의



부평에서 시작한 '솔아솔아음악제'는 지나간 '청춘'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넘어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 부평의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음반을 발표하며 우리네 삶을 진솔하게 노래하는 안치환의 공연까지 음악제의 열기는 점점 고조되었다. 가수들의 열띤 공연으로 참석한 시민들은 추억에 감동을 더 했다. 특히 안치환의 작중을 압도하는 무대 매너와 가창력은 이번 음악제의 백미였다. 공연을 본 시민들은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힘겹게 살아가는 데에만 집중해 빠듯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한 박자 쉬며 음악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행복했다, 고 덧붙였다.

뿌리 깊은 부평 음악의 가치, 창조적인 도시발전의 길을 열다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는 "부평의 미군클럽을 뒀 우리 밴드와 가수들, 악단들은 미군들을 위한 음악을 하면서 내공을 축적, 결국에는 우리 대중가요의 다양화와 질적 상승을 주도했다. 어떤 면에서는 부평이야말로 '한국 대중음악의 진정한 성장 거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부평은 이번 '솔아솔아음악제'를 통해 한국 대중음악 60년의 뿌리 깊은 음악도시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70~80년대 노동운동을 바탕으로 한 노동가요의 중심지였으며 고단한 노동자들의 삶을 노래에 담은 다양한 노동가요와 민중가요가 만들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부평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형 사업' 대상도시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부평 음악-융합 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2016 부평솔아솔아음악제'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이 음악도시 부평으로 확실히 자리하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부평구문화재단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음악도시로 선정된 부평구의 지역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음악도시의 뿌리를 알리는 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을 통해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문화도시 부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난해 처음 개최한 부평밴드페스티벌이 올 10월에는 부평 미군 부대에서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이다.

2016 부평솔아솔아음악제에
참여한
유명 뮤지션



INTERVIEW



심윤미
부평구립여성합창단

"고1, 중1 두 아이를 둔 엄마이자 자랑스러운 부평 시민입니다. 함께 오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저를 응원하는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관객이 많이 오시지 않을 거라 걱정했는데 너무 많이 호응해주어서 감사했습니다."



주성민, 박빈희

"부평아트센터의 공연이 좋아서 사이트를 자주 검색하다 '솔아솔아음악제' 공연 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좋습니다. 우리 부부는 9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노.찾.사의 공연이 가장 많이 기대됩니다."



이상환, 김한나, 이소현, 이대현

"급한 일로 외출했다가 공연에 늦지 않으려 부랴부랴 왔습니다. '솔아솔아음악제' 포스터를 보고 추억의 시간을 느끼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노.찾.사, 안치환 공연이어서인지 더 감동입니다."

“당신,
자기 몸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인 심리학 석학인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어떤 행위에 깊게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몰입 flow’로 명명했다. 이는 단순한 기쁨이나 열중할 상태가 아니라 완벽한 심리적 몰입상태에서 자신의 기술을 통해 얻게 된 노력의 산물이다. 신체의 기능을 통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평아트센터에서 열린 연극인 재교육 프로그램인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한 배우의 몸 & 공간 인식 확장’은 바로 이 신체의 몰입상태와 연결된다. 배우 등 관계자 30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으로 열렸는데 참가자들은 하나 같이 자신의 육체에 몰입하여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글 편집부
사진 전석병

잘 앉고 잘 서고 잘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AT 포스터 & 무브먼트 연구소의 김수연 소장의 진행으로 열린 교육은 130년 전 호주 출신 연극배우 프레드릭 마티어스 알렉산더가 발견한 자기의 사용(the use of the





참가자들은 신체의 물입상태를 통해 자기의 사용기술인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면서 육체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그에 따른 몸 사용 방법을 체득했다.

self) 기술인 알렉산더 테크닉을 기본으로 했다. 자기의 사용이란 몸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김수연 씨는 물입을 위해서 우리 몸의 불필요한 긴장을 내려놓는 방법을 주로 강조했다. “지시어를 생각하는 교육방식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대뇌가 발달하였고, 우리는 이러한 지성을 사용하여 몸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머리와 목, 척추의 관계를 중추조절(Primary control)이라고 설명하여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참가자들과 함께 실제로 하나씩 체험해나갔다. 모든 참가자들은 중추조절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강의를 진행하는 내내 몸이 이완되고 저절로 움직여지는 경험을 통해 획득하게 되었다. “<배우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수업 중 신체프로그램으로 발레와 무술을 다루는데, 스트레칭하고 몸의 언어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잘 서고, 잘 호흡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청하면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큰소리를 지르는 소위 애쓰는 방식의 교육을 하는데, 무조건 큰 소리를 내도록 하는 방법보다는 턱관절 구조를

알렉산더테크닉은,
존 듀이(실용주의 철학자), 찰스 헬링턴(노벨의학상 수상자), 휴잭 맨, 윌리엄 허트, 폴 메카르니, 스티, 마돈나, 키에누 리브스, 제임스 겔웨이, 줄리언 브룸(음악가), 존 맥에콘(테니스 선수), 제프 줄리앙(골프 선수) 등 여러 분야 유명인들이 교육받았으며 줄리어드 음대, 뉴욕대, 예일대, 영국 왕립 음악학교, 런던 드라마 스쿨 등에 정규 수업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해하고 구조에 맞추어 힘들이지 않고, 효율적으로 소리를 내보도록 하는 교육 방법이 적합합니다. 이번 교육에서 김수연 소장은 참가자들에게 평소 습관을 지양하고 발전시켜 잘 앉고 잘 서고 잘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체득하게 했다. 또한 자제심(inhibition)에 대해서도 강의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느냐에 따라 새로운 학습이 얼마나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체험이었다. “둘씩 파트너로 삼고 서로의 칭찬 거리를 찾아보세요. 파트너가 칭찬했을 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내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이는 자극과 반응을 붙여서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그 틈을 인식시켜주는 활동이 됩니다. 이렇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인지하고, 습관적으로 행했던 반응을 자신의 자유의지로 새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김수연 소장은 참가자들에게 자극과 반응 훈련을 시키고 자세를 통해 새로운 학습에 도달하게 했고 이후 전체가 함께 반응에 몸을 더하는 훈련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는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우고, 자유로운 몸을 통하는 모든 경험이 신기하고 재미났으며 강의 내내 몸에 대해 몰입하고 새로운 사용으로까지 발전하는 즐거움을 맛보았다고 입을 모았다.

INTERVIEW



“수업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열정과 에너지에 감탄했습니다”

강사 김수연

AT 포스처 & 무브먼트 연구소 소장

부평에서 처음 실행한 교육으로 AT 포스처 & 무브먼트 연구소는 자세와 움직임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하는 단체입니다. 생활자세 중심으로 해서 잘 앉고 잘 호흡하고 잘 움직이는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까지 교육과 연구를 같이 합니다. 연극과 무용과 음악인들이 중심이 되어 출발했는데 기업, 공무원 등의 분야에서 교육 의뢰가 들어오고 어린이아이 자세교정에서부터 노인 치매 방지 프로그램까지 적용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일반적인 강연은 개념이 무엇이고 일상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이번 교육은 연극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기 위해 무대에서 발생하는 것, 서있는 것 등으로 기본에 충실하되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했습니다.

첫날 4시간은 알렉산더 테크닉이 무엇인가, 연극인에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개념 위주의 강의로 구성했고 다음 날 4시간은 기본개념인 중추조절, 디렉션, 자제심과 잘 앉는 법, 잘 움직이는 법 등을 강의했습니다. 이들 내내 참가자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열정과 에너지가 대단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처음에는 자기 몸을 쓴다는 것이 낯설고 어렵기도 했는데 움직임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체화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연극인이자 더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경미
극단 심년후

“몸을 잘 인지하고 사용해 오래도록 행복하게 연기하고 싶습니다”

비록 짧지만 알차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피드백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몸을 쓰는 사람의 입장이자 그런지 알렉산더 테크닉 강의를 너무 유익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배우들의 서고, 앉고 하는 움직임에 관한 것인데 연기를 20년 정도 해오면서 움직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느끼고 인지하는 혹은 제어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부평아트센터에서 이런 강좌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수업을 바탕 삼아 오래도록 끊임없이 행복하게 연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몸의 용도와 쓰임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지아

문화기획자/연극배우

내 몸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내가 가진 재료에 대한 쓰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십자드라이버로 일자 나사를 억지로 돌리려는 것과 같았지만, 이제는 정확한 용도와 쓰임을 배웠습니다. 누워서 수업하며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학습이 좋았습니다. 저는 문화기획자로 바쁘게 콘텐츠를 기획하느라 자기 훈련의 시간이 적었습니다. 이번 알렉산더 테크닉은 따로 시간을 내어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에 맞게 균형을 맞추며 무리 가지 않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 기획자로서 육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브런치 콘서트’
음악이 만난
미술, 문학,
애니메이션

세 번의 만남, 세 번의 떨림

클래식은 어렵다, 비싸다, 졸리다 등의 편견을 깨뜨린 공연이 있다. 예술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부평아트센터의 ‘브런치 콘서트’가 바로 그것으로 ‘음악, 예술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4, 5, 6월 넷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쉽고 편안하고 흥미진진한 공연이어서일까, 이제 부평구민 중 ‘브런치 콘서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상반기 ‘브런치 콘서트’는 음악이 미술을 만나 눈을 즐겁게 하고(‘클림트, 베토벤을 만나다’) 음악이 도시를 만나 새로운 미적 감각을 제공하고(‘예술, 런던을 만나다’) 음악이 문학과 영화를 만나 번득이는 영감을(‘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다’) 선사하는 뜨거운 현상이었다. 세 번의 각기 다른 감동, 세 번의 가슴 찡한 떨림을 세 번의 ‘브런치 콘서트’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글 편집부
사진 전석범

음악이 예술을 만날 때

브런치 콘서트는 연주뿐 아니라 미술, 문학, 애니메이션 작품 등을 무대에 조명함으로써 공연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클림트가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소재로 베토벤을 추모하며 그린 ‘베토벤 전시회(Beethoven Frieze)’ 중



런던을 상징하는 미술 작품, 윌리엄 터너의 ‘비, 증기, 속도’

영국 그래피티 화가 뱅크시의 ‘레이제라물’, 난민을 향해 쓴 최후탄에 눈물을 흘리는 코제트



‘현공의 성 라푸타’의 로봇 병사, 스튜디오 지브리에 세워진 거대 동상



일본 대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표지

첫 번째 만남, 아름다운 떨림

4월 28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는 ‘클림트, 베토벤을 만나다’를 주제로 지휘자 안두현, 피아니스트 김재원,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양평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베풀어졌다. 이날 공연은 만석으로 초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머리 희끗희끗하신 어머니, 아버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이 꽉 들어찼다. 공연은 18세기 말, 그 시대 모든 이들의 귀를 훑치고 심장을 뛰게 한 베토벤, 그리고 찬란한 황금빛 색채로 보는 이의 마음을 매혹한 클림트의 운명적 만남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가 연주로 채색되었다. 이날 해설을 맡은 안두현 지휘자는 렉처 콘서트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청중과 대화하며 음악을 더욱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좋은 호응을 끌어냈다.

LIST

- 베토벤 | 교향곡 7번 1악장**
Beethoven | Symphony No.7 in A Major Op.92 Poco sostenuto - Vivace
- 베토벤 | 바이올린 로망스**
Beethoven | Violin Romance No. 2, Op. 50
-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3번 1악장**
Beethoven | Piano Concerto no.3 Allegro con brio
- 베토벤 | 운명교향곡 1악장**
Beethoven | Symphony No. 5 op.67 I. Allegro con brio



두 번째 만남,
자유로운 떨림

5월 26일, ‘브런치 콘서트’는 ‘예술, 런던과 만나다’를 주제로 윤상인 콘서트마스터의 해설과 함께 ‘클래식 칸 앙상블’ 8인이 함께 연주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연주는 런던의 다양한 예술 세계를 클래식과 뮤지컬 음악 등으로 표현해냈는데, 다양한 런던의 예술 세계에 걸맞는 선곡과 스토리 덕분인지 관객 몰입도가 높았다. 윤상인 콘서트마스터는 2005년부터 내셔널 갤러리,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등 유럽의 명화와 도시를 연결하는 시도를 통해 인상적인 도슨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공연은 런던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19세기 이후 예술의 중심지로 떠오른 과정을 크게 ‘첨단과 클래식이 공존하는 런던 이야기’, ‘젊은 예술가들의 천국, 현대미술의 성지’, ‘런던 대중문화산책’이라는 3개의 테마로 나누었고 여기에 런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곡을 중심으로 선정해 연주했다.

LIST

엘가 | 위풍당당행진곡
E. Elgar | Pomp and Circumstance
Marches Nos 1-5, op. 39

월리엄 왈튼 | 피아노 콰르텟 D단조
W. Walton | Piano Quatet in
D minor

엘가 | 사랑의 인사
E. Elgar | Salut d’amour

앤드루 로이드 웨버 | 자비로운 예수
A. L. Webber | pie jesu

헨델 | 파사칼리아
G.F. Handel | Passacaglia

앤드루 로이드 웨버 | 뮤지컬 메들리
(유펜라의 유령, 캣츠 외 다수)
A. L. Webber

스코틀랜드 민요 | 어메이징 그레이스
Scottish folksong | Amazing Grace



서로 다른 예술 분야의 만남을 음악과 해설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브런치 콘서트’는 그 이름에 걸맞게 공연 후에 커피와 빵이 무료로 제공되었는데 관람객들은 삼삼오오 아트센터 곳곳에서 공연의 여운을 즐기고 나누었다. 이제 ‘브런치 콘서트’는 부평구민의 삶에 떼려야 뗄 수 없는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알찬 기획과 스토리로 새로운 감동과 떨림을 선사하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세 번째 만남,
재미있는 떨림

6월 30일, 부평아트센터에서는 일본 유명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와 유명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세계를 음악으로 만나는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다’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일본 대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 두 거장의 작품에 얹힌 음악과 그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시에 하루키 책에 등장하는 슈만과 드뷔시의 아름다운 곡과 하야오 감독 영화의 음악을 책임진 히사이시 조의 주옥 같은 곡들이 연주되었다. 어린 관객들은 일본의 두 거장 작가의 숨겨진 이야기를 해설로 듣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영화 스틸 컷을 보며 때때로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는 등 시종일관 재미있게 관람했다. 해설은 안두현 지휘자가, 연주는 솔리 앙상블 4인과 변형정(바이올린)이 맡았다.

LIST

from 상실의 시대
드뷔시 |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中 3번 ‘달빛’
Debussy | Suite Bergamasque No.3,
Clair de lune

from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슈만 | 어린이의 정경 Op.15 中
No.7 ‘트로이메라이’
Schumann | Kinderszenen,
Op.15 - VII. Traumerei

from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히사이시조 | 어느 여름날
Hisaishi Jo | One Summer’s Day

From 천공의 성 라퓨타
히사이시조 | 이노센트
Hisaishi Jo | Innocent

히사이시조 | 1920 에이지 오브 일루전
Hisaishi Jo | 1920 Age Of Illusion

from 모노노케 히메
히사이시조 | 아시타카의 전설
Hisaishi Jo | The Legend of Ashitaka

from 하울의 움직이는 성
히사이시조 | 인생의 회전목마
Hisaishi Jo | Merry-Go-Round of Life

INTERVIEW



김민 뮤지컬배우 32세,
최지현 주부, 32세

“태고 목적으로 왔는데
잘 온 거 같아요. 저희는
음악전공자들이라 음악에 관심이
있는데 미술과 접목해서 공연을
볼 수 있으니 더 좋았습니다.
‘브런치 콘서트’는 부평아트센터
회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고
점심 프로그램으로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찾아가는 공연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연이라 더욱
유익했습니다.”



강진이 주부, 72세

“‘브런치 콘서트’에 네 번째 참석했어요.
원래 클래식을 좋아해서 자주 공연을 봅니다.
특히 베토벤을 좋아하는데 오늘따라 더 마음을
울리네요. 저는 늘 운전하면서 클래식을 들곤 하는데
오늘 생음악으로 베토벤을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부평아트센터가 부평구민을 위한 공연을
지속해서 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부평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요. 앞으로도
부평아트센터를 지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하은 초등학생, 11세

“오늘 공연을 보기 위해 멀리서 걸어왔지만 음악과 미술을
함께 듣고 보면서 피곤이 다 풀린 것 같아요.
신기하고 재미있고 대단했어요. 저는 커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는데 아이들에게 베토벤 곡을 연주해주고 싶어요.”



최석민 초등학생, 11세

“오늘 공연 정말 재밌었어요.
베토벤 음악이 웅장했고
여러 사람이 연주하는 데도
소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니
놀라웠어요.
평소에 아는 곡도 있었는데
베토벤이 작곡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지휘자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주셔서 베토벤 음악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부평영아티스트로 살아가는 법

때로는 냉정 하게, 때로는 열정 있게

글 편집부
사진 전석범

부평구문화재단에는 자랑거리가 많은데 실력과 가능성을 겸비한 '부평영아티스트'가 그중 하나다. 작년 10월 22일부터 11월 8일까지 선정작가 전을 통해 처음 선보인 부평영아티스트는 지역과 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역량 있는 작가의 경계를 넓혀나가는 부평구문화재단의 창조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이다. 수준 높고 실험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의 주인공으로서 세계적인 흐름의 첨단에 서 있는 김수진, 장준호, 박재영, 김치신, 김윤희 등 5명의 부평영아티스트가 한자리에 모였다.

추억의 과자,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기억을 주제로 작업하는 보스턴 공대 출신의 김수진 작가, 일상의 오브제를 사람에게 대입하면서 이미지를 형성하는 장준호 작가, 도시의 이미지를 사진으로 찍고 변형해 아름다움과 가치를 끌어내는 박재영 작가, 사회 문제에 대한 의식 있는 의침을 작품에 옮긴 김치신 작가, 동양미 술의 맥을 아크릴과 결합해 새로운 충돌을 시도한 김윤희 작가 등 한국 예술의 미래가 될 그들이 전하는 삶과 꿈,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진지한 수다를 살짝 엿들어보았다.

작업에 대해

냉정과 열정

김치신.....제 작업이요? 저는 '지금'과 '나'를 소재로 표현합니다. 독일과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한국인, 동양인의 입장에서 살다 보니 그 당시 사회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요즘엔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작업에 담으려고 합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방인으로서의 작업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구성원으로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담는 작업이지요.

장준호.....저는 단순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오브제를 소재로 합니다. 일상 오브제의 기능을 사람들에게 역으로 대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주로 도시 이미지를 사진으로 재현하는 데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라 디지털로 변환해 사진이면서 그림으로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어요. 사진을 사진으로서 보기보다는 작업에 소스로 활용하는 셈이지요. 항상 지나치는 삶의 주변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길치기 때문에 도시는 극복의 대상이거든요. 도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에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렵기도 하지만 공간을 살아가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된 제 아파트도 밤에 길을 잃곤 하는데 길을 헤매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도시가 아름답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김윤희.....저는 이질적인 소재로 그림을 그립니다. 주로 풍경을 그리는데 '먹'과 '아크릴'을 사용합니다. 풍경 작업하다가 보이는 이미지가 때로는 이질적이지만 조화롭게 느껴지는 것을 보고 배경을 '먹'으로 선택했습니다.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을 스스로에게도, 보는 사람들에게도 제공하고 싶어요.

김수진.....저는 '기억'을 주제로 작업해요. 어릴 적 추억을 대표하는 사물을 표현합니다. 표면상 드러나는 것은 사물이고 사물을 표현하는 동기는 어릴 적 추억이라 할 수 있지요. 회화가 위주인데 조형, 설치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공간을 정의하고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이미지를 좋아하지요. 특이한 공간이 설정되면 거기 안에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것들까지 작업합니다.



부평영아티스트

또 하나의 이름



김수진



김치신

김수진.....'자신감'을 얻었어요. 저는 미술 공부를 한국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도 없어요. 그래서인지 부평영아티스트 작가와 부평아트센터 직원 간의 교류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박재영.....인천예고 강사로 근무하면서 부평영아티스트로 지원했습니다. 심사에서 다행히 통과되어 영아티스트분들을 만나게 되고, 전시도 했고, 결혼도 하고, 내친김에 인천으로 이사도 했어요. 부평영아티스트 선정이 제게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 같아요. 작지만 큰 연인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비슷한 연배 동료도 만나고 이야기가 통하는 동료도 만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의 프로그램을 함께하면 좋겠어요.

김치신.....부평영아티스트들은 공동체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선정되고 나서 부평구문화재단에서 부평영아티스트 5명의 작품과 이야기를 이슈로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촬영하는 것도 즐겁고요.

김윤희.....부평영아티스트는 작업이 훌륭하고, 대화가 유익하고, 태도가 좋아서 볼수록 친숙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준호.....부평영아티스트로서의 작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작업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정작가전에서 제 작품이 설치라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다들 이해해 주었어요. 특별히 공식적인 모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연대감이 조성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ARTIST'S NOTE

“내가 소망하는 세상은”

김수진 작가

사물에는 시간과 공간, 문화와 세대를 거슬러 기억을 전달하는 힘이 있다. 그 기억은 주관적인 것일 수도, 여러 사람의 공통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사물에 나의 기억을 담는다. 나의 기억은 표현이라는 행위로 재해석되어 사물에 입혀지고 나는 그렇게 표현된 사물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한다.



Cracked Oreos No2
Contecrayon On Paper | 254×304.8cm | 2012

박재영 작가

나는 우리의 삶에서 흔히 보거나 지나쳤던 기억, 그래서 전혀 신선하지 않은 그런 따분한 일상과 구조를 사진기에 담는다. 사진 작업은 복잡한 도시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서 벌어진 일상을 조명한다. 평범하게만 느껴지던 일상에 감춰진 수많은 시선, 이를 통해 바라본 삶의 다양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싶다.



repeat 홍대 기차길
digital print | 150×46.37cm | 2014

김치신 작가

직접 경험한 소소한 개인의 이야기에서부터 국내외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경험과 상황들을 작업으로 표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모든 사물과 상황을 예술적 매체와 소재로 엮어두어 외형을 직접적으로 변형하는 방식보다는 약간의 리터칭을 통해 기존의 속성을 변화시켜 나의 지금 모습 또는 우리의 지금 모습을 작업에 나타내고 있다.



I'm so hot.
다리미에 아크릴 채색 | (12×30×17cm)×3 | 2012

김윤희 작가

풍경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기묘한 공간들을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실제의 이미지가 아닌 단순하고 패턴화된 모습으로 묘사하고 그 안에서 공존하는 거주의 공간도 도식화된 이미지로 표현했다. 기존 산수 이미지를 탈피하고 기묘한 공간 속에서 설렘을 느끼게 하고자 하였다.



물은아침
등암화 | 장지에 먹,아크릴릭 | 91×117cm | 2014

장준호 작가

일상에서 사람들은 영역을 구분 짓기 위해 사용한다. 또한 ‘공간을 차지하다’, ‘공간을 채우다’ 라는 말처럼 공간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에 의해 점유될 수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 어떤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작업을 통해 여러 가지가 결여된 사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 인식의 부재(不在)로 사라진 공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내며 그곳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자 한다.



공간: Colonne du fini
mouse cage trap, electronic device(moter, edison lamp) | 76×76×265(variable height)cm | 2015

내일의 그림

오늘을 사는 이유

박.재.영.....부평영아티스트로 선정이 되고 나서 바빠졌습니다. 한 기업 로비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부평 작업과 맞물려서 도시 이미지를 유리 보석 같은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조각인데 내년에는 조각으로도 작업해보고 싶습니다.

김.윤.희.....내년까지 작업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출산과 육아 때문에 작업을 많이 못 했는데 작업량을 늘려 페이스를 찾으려고 합니다. 도움닫기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이후는 여행도 많이 가고 스케치 작업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김.수.진.....부평영아티스트로 선정되면서 제가 실력있고 새로운 신진 작가로 인정받은 느낌이에요

감사했습니다. 공부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미술환경이 달라지니 계속 작품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부평영아티스트가 되면서 확신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주저함이 사라졌어요. 계속 전시가 이어지고 있고 전시하면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준.호.....선정전시가 제게 준 선물이 많습니다. 선정전시 때 처음으로 작업한 것을 토대로 올해도 청주 등지에서 단체전을 하고 있으며 개인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작업에 변화를 주고 싶습니다. 작업의 소스를 얻거나 깊게 생각하는 방법 찾기를 기대합니다.

일상에 대해

예술과 삶



박.재.영.....예술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친구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니 행복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좋아하는 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감수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과정 자체가 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예술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장.준.호.....저는 일상적인 것을 작품으로 만들다 보니 일상의 고민이 소재가 되곤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직장과 경제활동, 나와 내 주변인들의 삶, 사회와 정치 등에 대해 고민합니다. 저는 이런 일상의 고민을 계속 소소하게 작품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게 ‘일상’은 완전한 ‘예술’입니다.

김.치.신.....저는 진지하게 장난치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의 매체에 매달리지 않고 이상하지만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 작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예술이 계속 이어지는 삶, 그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모두를 위한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의
인형극



거침이 없었다. 때로는 순서를 놓칠세라
마음이 급해지기도 했고, 박자를 살짝 놓치기도
했지만, 그럭저럭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아이들 손으로 만든 인형극의 한 대목이다.
무대를 만드는 열 명의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기자로, 무대준비로, 코러스로,
댄서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했다.
순간의 실수와 쑥스러움에는 깔깔, 호호 웃으며
대응하니 관객도 그간 공평 묶어뼌
삶의 긴장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
부평문화사랑방 1기 사랑방인형극단은 그렇게
기특하게 공연했다. 공연 내내 흐뭇하고 몽클했던
이유는 아이들에 의한, 아이들의 인형극으로
시작했지만, 모두를 위한 힐링의 시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공연에 대한 느낌을 네 글자로만 표현한
아이들의 대답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볼.빨.개.짐

처음 시작할 때 말도 한마디 못했더라 아이들은
“볼빨개짐”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했다고. 무대 위 내가 만든 이야기인 ‘사랑방
인형극단’은 아이들이 이야기와 오브제를 직접
만들어 발표하는 인형극 제작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했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11주가 지난 6월 27일, 부평문화사랑방에서는 박영희
선생님, 성나리 선생님의 지도로 초등학교 11명의
아이들이 펼치는 인형극이 개최되었다. 1부는 ‘투들이
아저씨와 요정’이라는 제목으로 2부는 ‘어떤 나라의
어떤 이야기’를 제목으로 각각 두 팀이 인형극을
펼쳐나갔다.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볼이 빨개졌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극의
포인트와 긴장감을 서서히 풀어올렸다.

재.밋.었.음

사랑방인형극단에 참여한 아이들은 한결같이
“재밋었음”이라 말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다. 이번
사랑방인형극단의 목표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을 온갖 상상력이 발휘된 예술적이고
미적인 극적 오브제로 만들고, 여기에 생명을 부여하는
재탄생의 창작과정을 공연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공연 전 아이들은 인형극을 위해 자신만의 글을 짓고,
인형을 만들고, 녹음하며 상상력을 키워나가더니
공연이 끝난 후 아이들은 한결같이 완전몰입,
완전핵심, 재밋었다, 머 입을 모았다.

인형극이 울려지기까지의 과정 소개



아.쉬.운.맘

공연이 끝났지만, 아이들은 한결같이 공연장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얼굴엔 땀과 흥분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채 깔깔대며 무대 위에 머물러 있었다. 아이들은 그때의 마음을 “아쉬운 맘”으로 표현하면서 저마다의 소감을 전했다.

“처음에 할 때는 쑥스러웠는데
이젠 재미있어졌어요”

“공연할 때는 긴장했는데 하면서
여유가 생겼어요”

“공연하기 전에는 막춤이 저절로 나왔는데
공연할 때는 조금 긴장이 되어서인지
막춤이 나오지 않았어요”

“공연할 때 실수할까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예상보다 관객들이 많이 오셔서 고마웠고
성원을 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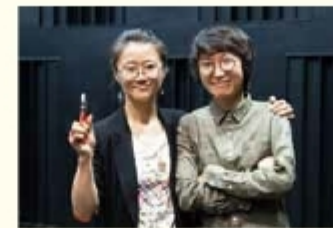
고.마.웠.음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은 대부분 연기자의 친구, 가족이었다. 언니의 연기를 보며 감동을 한 아이의 말은 바로 “고마웠음”이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해냈다. 지도하는 두 선생님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간의 수고와 노력을 치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뽀뽀지다잘해 상’, ‘뽀뽀지다잘해 상’, ‘뽀뽀지다잘해 상’, ‘뽀뽀지다잘해 상’, ‘뽀뽀지다잘해 상’, ‘뽀뽀지다잘해 상’, ‘뽀뽀지다잘해 상’, ‘뽀뽀지다잘해 상’ 등 그 이름만으로도 아이들의 개성과 특징을 잘 살린 유쾌한 상장을 수여했다. 세상의 어떤 상보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축하하는 사람 모두가 행복해지는 신비한 시상식이었다.



INTERVIEW

박영희, 성나리 선생님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의 대부분은 바로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수업하면서 감동이 있었던 부분은 아이들의 집중력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공연 두 번째 팀은 장면이 30개가 넘어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연습 시간도 부족했고 타이밍을 맞춰야 하는 순간이 많았는데 거짓말처럼 아이들이 멋지게 해냈습니다. 사실 인형극이라는 게 흥분하면 틀리게 되고 스텝이 꼬여 무대 뒤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물 흐르듯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공연을 목적에 두었다면 무대 연습을 더 많이 했겠지만 우리는 인형극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위주로 수업해 인형을 만나는 시간, 각자 소개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아이들 스스로가 극의 스토리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랑방인형극단으로서 배우 수업을 제대로 한 셈입니다. 앞으로 경연대회나 발표회 등을 통해 사랑방인형극단의 활성화를 꿈꿉니다. 향후 부모와 함께 하는 공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학기 2기 모집을 하는데 모이는 아이들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새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도 아이들의 예술적 감각을 깨우도록 더욱 공부하고 연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예찬 12살 5학년



“가장 재미있었던 때는 ‘인형 만들기’와 발표회 때예요. 선생님이 재활용품을 이용해 인형을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조언해 주셨어요. 이야기 쓸 때, 아이디어 낼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결국 제 아이디어가 스토리에 반영되어서 너무 기뻐요.”

오채완 10살 3학년

“저는 만들기를 가장 잘했지만 연기는 좀 어려웠어요. 오늘 연극을 할 때 자리를 못 잡아서 헛갈렸는데 완서가 도와줘서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완서에게 고마워요.”

권서영 12살 5학년



“무대에 선 적이 많아서 그렇게 떨리진 않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리 잡는 것도 어려웠고 어린 아이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인형극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나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연극배우의 꿈을 이루는 데 이번 인형극을 통해 한 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추명숙 님 손완서 어머니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시작했을 때만 해도 수줍어서 말도 못하고 하던 아이였어요. 수업을 받는 동안 집안 일 때문에 두 번 빠졌는데 너무 속상해하고 아쉬워했을 정도였어요. 딱 하루 재미없었다고 말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스토리를 짜는 날이었고 서로 이견 조율이 잘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서로 자기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큰 교훈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런 과정들을 선생님들께서 허용해주시고 대화하면서 기다려주셨다는 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보통은 작업을 이어가야 하니까 선생님과 아이들이 타협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해봐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해보자, 하며 아이들을 기다려주신 점은 참 감사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부평구문화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이런 기회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영 님 신서영 어머니



“공연 보는 내내 아이들이 정말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서영이는 인형 만들기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니 힘들어했는데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제게 공연 연습을 했다, 대사 녹음도 했다, 노래도 했다, 이렇게 재잘대면서 재미있어했어요.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공연을 보면서 아이들보다 제가 더 떨었는데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신상국 님 신서영 아버지

“그동안 아이들 수업하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어떻게 준비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수업을 듣는 모습이나, 틀을 깨는 작업 등을 통해 아이들이 배우로서 잘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간의 창의적인 수업 과정이 오늘의 성공적인 공연을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 손으로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동네에 있다는 것과 아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는 데에 부평구문화재단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공감共感, 톡톡talk talk

‘2016부평구문화재단
팀워크 향상 및 비전모색을 위한
직원 워크숍’ 개최

- 1 마음 열기와 몸풀기 시간,
아이스브레이킹(스펫), 매직, ‘지나가겠습니다’
게임 등을 진행했다.
- 2 게임으로 배우는 소통&비전 활동, 모서리
게임과 Key Pad Game 등을 통해 효과·효율적
소통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을 모색하고
팀워크, 공동의 비전을 위한 팀별 활동에
집중했다.
- 3 편집회의를 통해 부평구문화재단 비전을
모색하는 시간. 편집회의는 전문가 그룹 VS.
기자 그룹을 나눠서 진행해 부평구문화재단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1

최근 조직이나 기업에 가장 쟁점이 되는 화두가 ‘공감’과 ‘소통’이다. 공감은 단순히 다른 대상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그 감정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공감 활동이 이루어질 때 조직에 대한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서의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나도 함께 느끼는 과정을 의미한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서로 간의 공감을 통해 발전적인 팀워크를 끌어내기 위한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다양한 감정 경험을 함께 나누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감정의 공감이 조직의 소통을 넘어 비전의 확립까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난 2월 25일, 부평구문화재단은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재단 직원을 대상으로 부평구문화재단의 역할 및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방향성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직원들 간 다른 업무 및 팀별 소통 어려움 등으로 경직되어가는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팀워크 향상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은 부평아트하우스 1층 아카이브실에서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문화사업본부 직원 30여 명이 참가, 전문 모더레이터 진행에 맞춰 및 라운드테이블 토론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김성학(Eduway 대표) 모더레이터 중심으로 직원들의 ‘마음 열기와 몸풀기’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되었고 게임활동을 통해 직장 내에서 효율적 소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기자와 전문가라는 역할극을 통해 부평구문화재단 비전과 문제점 및 대안에 관해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서 참가자들은 “현재 비전은 모두 함께 나누는 예술, 누리는 문화, 만드는 도시인데 비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직원들 간 소통이 잘되어야 하고, 직원들의 행복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재단으로서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그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문턱이 낮은 문화재단, 문화소외자(탈북자, 노인, 어린이 등)들이 문화를 편하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또 부평구문화재단의 걸림돌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며 소통 부재의 타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구조적 문제 및 경직된 시스템에 대한 의견과 내실 있는 발전과 유지 그리고 인력부족과 실행의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워크숍은 부평구문화재단의 주춧돌인 직원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동료 간의 공감, 조직에 대한 공감,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단의 발전 방안까지 끌어낸 유익한 시간으로 평가된다.

talk.talk

“다양한 게임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 및 효과·효율적 소통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뜻깊었습니다.”

“팀별 활동을 통해 서로의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단에서 처음 진행된 워크숍으로 개인적으로 재단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을 공문화하여 공유했다는 지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회적 워크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워크숍 계획을 통해 공유된 문제에 대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찾는 등 다음 단계의 워크숍으로 지속적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글와글, 시끌벅적 ‘2016 부평키즈페스티벌(BUKIF)’의 흥겨움

지난 5월, 부평아트센터에서는 독창적이고 색다른 즐거움을 만끽한 기획 전시, 공연, 체험 기회가 가득했다. 5월 1일부터 13일까지 ‘2016 부평키즈페스티벌’이 부평아트센터 공연장과 야외 광장에서 개최된 것이다. ‘2016 부평키즈페스티벌’(이하 2016 부키프)은 2014년에 부평구 문화재단이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한 축제로,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2016 부키프’에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부평아트센터, 부평구청소년수련관,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 부평구립도서관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펼쳐졌다.

‘2016 부키프’는 <구름빵 시즌3>로 시작되었고 부평구문화재단 제작공연인 어린이 창작음악극 <할락궁이의 모험>이 공연되었다. 키즈테라피 에듀콘서트 <딱따구리 음악화>도 열려 마림바, 실로폰, 팀파니, 차임벨 과 같은 타악기로 신나는 무대를 선사했다. 이 밖에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되었는데 어린이날에는 <부키프 초록누리 축제>가 열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의 신나는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했다.

아이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마음을 보여줘’

특별히 ‘2016 부키프’에서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그리기대회 ‘마음을 보여줘’가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유로운 주제에 맞게 어린이들의 무한 상상력을 뽐내는 행사였다.

BUKIF 어린이그리기대회 ‘마음을 보여줘’는 ‘어떠한’, ‘무엇이든’ 창의력과 상상력을 원 도화지에 채워 마음을 그리는 행사로 313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전문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33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BUKIF상을 시작으로 해누리상, 달누리상, 꽃누리상, 별누리상, 구름누리상을 받은 수상자들은 상장과 상패, 부상으로 그림 액자와 부평아트센터 전시, 공연 티켓을 받았다.

그림대회 수상작 제목도 창의적이었는데 ‘복숭아를 훔쳐보는 아이’, ‘바다처럼 크고 시원한 내 마음’, ‘인천 바다 여행’, ‘가족과 함께한 초록누리 비눗방울축제’, ‘작은 소망 마음 깊은 곳에’ 등이었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돋보였다. 이번 그림대회의 수상작들은 5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제2전시실에서 전시되었다.

한편 같은 기간에 부평아트센터 갤러리 꽃누리 제1전시장에서는 순수회화, 일러스트, 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시대 미술작가들의 시각 언어로 표현된 ‘얼굴을 부탁해’가 열려 BUKIF 어린이그리기대회 ‘마음을 보여줘’ 수상작 전시와 함께 시너지를 이루었다.



‘마음을 보여줘’

BUKIF
어린이그리기대회



news

꿈을 나누는 행복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드림
시민회원 출범식 개최

부평구문화재단(대표이사 박옥진)과 후원회(회장 최도현)는 지난 3월 29일(화)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문화드림 시민회원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문화예술기부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꿈을 나누는 행복 ‘문화드림 시민회원 출범식’ 행사에는 부평구와 인천에서 활발한 문화예술사업을 펼치고 있는 문화예술기관과 문화예술단체, 주요 상가 연합회와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체 및 사회적 기업 등 총 20여 개 단체와 기업의 대표들이 참여했다.

부평구문화재단은 지난해 후원회를 결성하여 50여 명의 후원회원을 확보하고 1억 8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금한바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시민회원 제도는 후원회를 중심으로 두고 은행 계좌 이체방식(CMS)의 소액기부자를 확대하는 후원방식이다.

‘튼튼한 후원’ 후원회는 고액의 기금을 단기간에 모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아름다운 참여’ 시민회원은 소액의 기금을 지속해서 모으고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또한 부평구문화재단 이사장인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최도현 후원회장(대원인물 대표)이 참석하여 ‘문화드림 시민회원’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문화드림 시민회원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소정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협약한 부평과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과 단체, 주요 기업체 등이 함께 참여했다.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로는 극단 십년후(송용일 대표), 잔치마당(서광일 대표), 미주홀오페라단(이도형 단장), 더늠(성창훈 대표), 자바르떼(이찬영 대표), 부평울스타빅밴드(정유천 대표), 세움(유세움 대표), 리더안우쿨렐레 오케스트라(강경애 단장) 등이 참여했고, 주요 기업체로

는 청년로타리마켓(오병찬 대표),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김도균 센터장), 엔타스튜디오(이승규 부사장), 고정현헤어(고정현 대표), 씽크빅문고(노태손 대표), 아이즈빌(김원삼 상무) 등이 참여했다.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드림 시민회원’ 모집 사업은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화예술기부 캠페인을 통해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부평구문화재단 박옥진 대표이사는 “문화예술기부의 확산을 위해 문화재단 직원부터 솔선수범하고자 임직원들이 먼저 시민회원으로 가입했다. 앞으로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기금이 확보되면 부평구민과 부평문화예술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부평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분께서 ‘문화드림’ 활동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 달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문화드림 시민회원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문화드림 카드가맹점으로 협약한 20여개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이 진행되었으며, 부평구기업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문화드림 시민회원은 현재 문화재단 임직원을 포함한 60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올해 동안 5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회원가입은 한 구좌에 5,000원부터 총 다섯 계좌 25,000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원하면 더 큰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낼 수 있다. 기금이 조성되면 후원회 기금과 함께 지역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귀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문화드림 후원회 및 시민회원 관련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 (032-500-2081)를 통해 가능하다.

상주단체

음악도시 부평을 ‘세우는’ ‘별’들

부평울스타빅밴드 &
문화공작소 세움

부평아트센터는 일 년 내내 연주와 열창 그리고 열정 어린 연습과 아낌없는 관객의 응원이 있는 움직이는 공간이다. 지금의 부평아트센터가 있기까지 부평의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으며 더불어 부평 지역에서 인상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아트센터 상주단체로 선정, 상호 협력하고 있다.

그중 중장년층의 추억과 부평 하우스밴드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부평울스타빅밴드’와 국악을 근간으로 음악 창작과 무용, 이미지, 영상 등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가 돋보이는 ‘문화공작소 세움’을 소개한다. 인천지역에서는 이미 명물로 손꼽히는 두 단체의 구성원들은 지금도 부평아트센터와 함께 예술에 대한 열정을 공연을 위해 쏟아붓고 있는 중이다.

추억을 소환하는 전문연주인, 부평울스타밴드

해방 이후 주둔한 부평의 ASCOM(미군수지원사령부)은 현재 K-POP을 비롯해 서양식 대중음악을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관문 역할을 하였다. 특히 부평 에스컴 미8군 클럽에서 연주하던 하우스밴드들은 대부분 스윙재즈를 연주 하였던 음악적 특성이 있었고 그 영향으로 많은 브라스악기 연주자들을 배출하였다. 부평울스타밴드는 이런 지역의 음악적 특성을 살려 부평만의 특화된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고자 2005년 부평에서 활동하던 연주인들 중심으로 창단하였다. 단원들은 평균 4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연주자들로서 정유천 단장을 중심으로 대부분 30년 이상 악기를 연주한 전문연주인들이며 각자 다양한 음악적 경험이 있다. 단원 중에는 1950년~1970년대 부평에스컴 미8군클럽에서 연주하였던 연주인들도 있어 부평울스타빅밴드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창단 후 10여 년 동안 매년 부평시민을 위한 공연을 실시해 왔으며 ‘American Patrol(Glenn Miller 곡)’, ‘Moonlight Serenade(Glenn Miller 곡)’, ‘In The Mood (Glenn Miller 곡)’ 등 끊이지 않는 레퍼토리를 갖고 있다.

mini interview

정유천 | 부평울스타빅밴드 단장

“부평울스타빅밴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는 음악이 부평의 음악이고 부평음악의 정체성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니어빅밴드’ 교육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사회 은퇴자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실버빅밴드를 창단하게 하는 등 사회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예술길을 여는 사람들, 문화공작소 세움

2011년 설립된 ‘문화공작소 세움’은 일종의 아티스트 레이블 형태를 취하며 월드뮤직(세움), 재즈(일일사운드), 퓨전국악(양상블 다나루), 영상, 사진, 디자인 영역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속해서 아티스트들을 인큐베이팅을 하여 문화 예술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유세움 대표를 중심으로 2013년 ‘태평성대가 여기로구나!’를 시작으로 ‘판타지아’, ‘코리안 브레스’, ‘심연’등의 레퍼토리 공연을 기획 제작하며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정규 앨범은 총 4장(SE'UM, The BREATH, Korean Breath, Rewind & Rebirth)으로 이중 [SE'UM]은 2015 한국대중음악상 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대중과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평점 만점 획득), ‘오사카 타카츠키 페스티벌’, ‘가나자와 재즈스트리트’ 등에 해외 주요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천 예술 단체로서는 최초로 2015 PAMS Choice, ApaMm 공식쇼케이스에 선정되어 국내외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해외 음원 유통사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페스티벌의 관계자들과 초청을 논의 중이다.

mini interview

유세움 | 문화공작소 세움 대표

“부평아트센터의 상주예술단체로 선정된 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활동의 폭도 넓어졌으며, 네트워크도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정보 공유와 부평아트센터와의 협업도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고 향후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무엇보다 부평아트센터가 상주단체의 활동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것들에 보답하기 위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이것을 부평아트센터와 나누는 것을 역할과 책임으로 삼겠습니다.”





미리 보다

2016 하반기, 부평아트센터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몸의 양식도 마음의 양식도 무르익어가는 계절,

부평아트센터는 책을 읽어주는 콘서트에서부터

부평구 관련 단체의 정기연주회, 인문학 강의까지 부평구민을 위한

맞춤형 문화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두근두근, 부평아트센터의 가을, 겨울이 벌써 기대된다.

What's Hot

백건우의 선물

2016 부평밴드페스티벌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부평옥션 3rd 화이트세일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양방언 EVOLUTION 2016

Calendar



WHAT'S NEXT 1



데뷔 60주년을 맞은 피아니스트 백건우!

수십 년간 함께한 팬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프로그램 선정!

1946년생, 만 70세의 백건우는 오랜 기간 여러 작곡가의 작품 세계를 전착해왔다. 청년 시절에는 음악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지만 “이제는 음악을 즐기고 있다”(2015년 교회 기념 기자간담회)고 고백하기까지, 그는 언제나 관객과 함께 성장했다. 백건우는 60여 년 자신의 음악 인생을 함께해온 관객들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독주회로 만들었다. 2016년 9월, ‘백건우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자신을 아껴준 모든 관객과 벗하고자 한다.

공연 프로그램 곡목은 관객에게 무언가를 선사하고픈 백건우의 진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바흐 프랑스 모음곡 5번과 브람스 ‘헨델 주제에 의한 변주곡’, 리스트의 ‘바흐 이름에 따른 음계명 환상곡’은 “백건우가 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같은 작품들로 선곡됐다. 레퍼토리가 예고되면, 관객들이 예상하고, 백건우의 연주로 확인하는 기존의 감상 패턴에서 벗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객석에 앉아 관객과 색다른 모습으로 조응하는 백건우를 확인할 수 있다.

우수클래식
프로그램

백건우의 선물



일시

9. 24(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VIP 8만원

R석 6만원

S석 5만원

시야장애석 3만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WHAT'S NEXT 2



제2회 부평밴드페스티벌

오리지널 앤 모던

The Original
& The Modern

일시

10. 14(금), 15(토) (2일간)

장소

부평공원, 부평3동

부평밴드페스티벌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구성되어 음악의 집중도를 높이고 누구나 편안하게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되고 있다. 올해는 다양한 아티스트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예술적 체험뿐만 아니라 미군부대(부평 밴드페스티벌), 부평공원(프리마켓), 부평3동(사운드바운드)에서 다양한 축제형식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할 계획이다. 참가 밴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빅밴드, 재즈밴드 등과 현재 왕성할 공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젊은 뮤지션으로 구성된다.



출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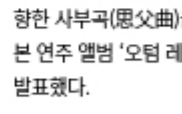


말로 세계인의 음악인 재즈의 보편성과 한국적 재즈의 특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재즈 보컬리스트로 '스캇의 여왕' '한국의 엘라 피츠제럴드'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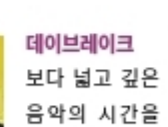
시에 보여주는 재즈 보컬리스트로 '스캇의 여왕' '한국의 엘라 피츠제럴드'로 불린다.



성조 전 KBS 관현악단장의 아들이다. 정중화 교수의 아버지를 향한 사부곡(恩父曲)을 담은 첫 번째 트롬본 연주 앨범 '오텐 레인(Autumn Rain)'을 발표했다.



성조 전 KBS 관현악단장의 아들이다. 정중화 교수의 아버지를 향한 사부곡(恩父曲)을 담은 첫 번째 트롬본 연주 앨범 '오텐 레인(Autumn Rain)'을 발표했다.



사랑과 평화 이철호(리드보컬, 퍼커션), 이권희(건반), 박태진(베이스), 정원식(드럼), 이혜준(기타) 등의 구성원으로 '8 Entertainment Group' 소속이다. 1978년 1집 앨범 <한동안 똬똬했었지> 이후 2005년 제12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연주보컬그룹상을 수상했다.

데이브레이크 보다 넓고 깊은 음악의 시간을 열어가는 라이브의 절대강자로 '음악 안에서 자유롭다'를 모토로 하고 있으며 Pop을 기반으로 Rock, Jazz, Latin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그들만의 스타일로 녹여내고 있다.

스트릿건즈 스트릿건즈는 로큰롤 사운드와 컨트리 장르가 혼합된 로커빌리를 하는 뮤지션으로 전 세계 1만 팀 이상의 밴드가 경합을 벌인 '하드록라이징2016'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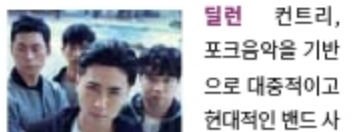
정중화 (명성조 재즈오케스트라 / 명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재즈 뮤지션으로 한국 재즈 1세대 뮤지션 정



우승한 한국 밴드이다.



락스 일렉트로닉 개러지 락으로 폭발하는 댄스 유발자로 거친 에너지를 가진 개러지 사운드에 일렉트로닉적인 요소를 가미시킨 트렌디한 음악을 추구하는 팀이다.



덜런 컨트리, 포크음악을 기반으로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밴드 사운드를 풀어내며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유니크한 음악을 선보인다.

WHAT'S NEXT 3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중학교 국어교과서 수록작품 (천재교육, 금성출판사, 미래엔)

시즌1 누적 관객 33만 명! 작은 연극이 시작한 대학로의 기적!

4개 부문 수상경력: 연극협회 '베스트 연극상', 대한민국국회대상 '연극상', 동아연극상 '작가상', 희곡작가협회 '작가상'

일시

11. 11(금) 20:00,
12(토) 16: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전석 2만 5천원

2003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4,396회의 공연을 통해 누적 관객 33만 명을 기록하며, 대학로 소극장 연극의 기적을 만들었던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은 중학교 국어교과서에도 수록되며 그 작품의 깊이와 의미를 인정받은 바 있다. 단체관람을 통해 극장을 찾았던 학생이 교사가 되어 다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극장을 찾게 하는 매력은 세탁소만이 지닌 따뜻한 감동이 아닐까? 꼭 찬 대본, 연출과 연기,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작품에는 '연극'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관객을 맞이하는 매표소에서부터 느껴지는 손때문은 리얼리티. 극장을 찾는 관객 모두가 세탁소를 찾은 손님이 된다. 낯익은 세제 향이 폴폴, 다리미의 스팀이 느껴지는 이곳 오아시스 세탁소 사장님은 항상 말씀하신다. "우리가 진짜 세탁해야 하는 것은 말이야, 옷이 아니야. 바로 이 옷들의 주인 마음이야."

WHAT'S NEXT 4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부평옥션 3rd 화이트세일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이라는 지역 캐치프레이즈에 맞게 예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이루어낼 미술품 자선경매 <화이트세일>을 진행한다. 부평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미술품 자선경매를 진행하여 미술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작품 소장과 기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예술을 통한 나눔 확산'을 취지로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삶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Auction

일시 11. 22(화) 19: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PART 1 컨템포러리 세일(동시대미술)

PART 2 프리미엄 세일(큰 그림 경매)

PART 3 스페셜 세일(작은 그림 경매)

Preview

일시 11. 17(목) ~ 11. 21(월)

10:00~18:00(경매일을 고려해

월요일 전시장 오픈)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After

일시 11. 23(수) ~ 11. 27(일)

10:00~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경매 출품작

PART 1: 컨템포러리(동시대미술)

부평옥션에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 및 부평구문화재단 기획전시회 참여했던 시장성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

—— 전운영, 이승희, 전화순, 이영애, 김윤희, 김이슬, 김수진, 재미림, 한아름, 서재현 외

PART 2: 프리미엄세일

부평옥션의 화제성과 시장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

—— 김선두, 고찬규, 문인환, 임만혁, 강지만, 아트늄, 이경훈 외

PART 3: 스페셜세일(작은그림 경매 / 2016년경매)

소품 위주의 작품과 프린트를 시작가 16만 원부터 진행

—— 윤서희, 예나림, 박정인, 다니엘경, 송광찬, 김아리따 외 1부, 2부 작가들 중복으로 구성

* 경매 형태 자선경매(White Sale): 경매 수수료 없이 전액 기부 형태로 진행 / 위탁자(작가)와 낙찰자(구매자) 동일 조건 진행

WHAT'S NEXT 5



일시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11. 26(토) 20:00
27(일) 14:00, 18:00
29(화) 20:00
30(수) 16:00

인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12. 8(목)~9(금) 20:00
10(토) 14:00, 18:00
11(일) 16:00

장소 국립극장, 부평아트센터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국립극장 R석 6만원, S석 4만원

부평아트센터 R석 4만원, S석 3만원, 시야장애석 2만원



부평구문화재단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대중음악 60년의 뿌리, 찬란한 음악도시 부평을 그린다.

“인천의 1950년대를 대표하는 에스캄 부대 주변에 성행하였던 음악클럽이 현재의 대한민국 대중음악 발전의 시초가 되었음에 주목하여 공연 제작”

부평의 미군 에스캄부대를 배경으로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음악이라는 희망으로 치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극. 음악이라는 치유제를 통해 무너진 꿈에서 활력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사랑 등을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표현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음악에 대한 꿈을 갖고 미군부대 오디션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용생과 종현 등을 통해 대중음악의 60년 뿌리를 시대별 음악과 함께 풀어내면서 부평이 지닌 특수성과 휴머니즘적인 보편성을 담은 작품이다.



WHAT'S NEXT 6



2015년 전국 8개 도시를 환호하게 했던 바로 그 공연. 동양의 감성으로 서양을 연주한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는 감동의 100분!

2004년 예술의전당에서 <양방언 Evolution 2004>가 처음 열린 이래, 양방언은 자신의 음악인생에 있어서 큰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이 <Evolution>의 이름으로 콘서트를 열었다. 그동안에 이루어낸 <진화>의 산물과 앞으로의 지향점을 관객과 공유하는 순간이었다. 올해는 그가 솔로 아티스트 데뷔 20주년을 맞는 해로, <양방언 Evolution 2016> 무대 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질 것이다. 이번 공연은 지금까지 발표한 7장의 솔로앨범 외에도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온라인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해온 그의 음악적 발자취를 한번에 추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양방언

의사 출신의 재일한국인 작곡가. 프로듀서. 피아니스트

-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음악감독
- 임권택 감독 100번째 영화 <천년학> 음악감독
- 온라인게임 <아이온>, 애니메이션 <여우비> 음악감독
- MBC 드라마 <상도> 메인테마곡 작곡
- 2012~2014 국립극장 <여우락페스티벌> 예술감독
- 2014 소치동계올림픽 폐막식 평창공연 음악감독
- 2016 <제주뮤지컬페스티벌> 예술감독

공연 프로그램

- No Boundary
- Prince of Jeju
- Asian Beauty
- Echoes
- Frontier

2016년 한문연 방방곡곡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양방언 EVOLUTION 2016



일시 12. 17(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티켓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시야장애석 2만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
프로그램과 공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떠나는 유럽 배낭여행 -
이탈리아 편

청소년 음악회



일시	8. 11(목)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전석 1만 5천원

여름방학 특집 청소년 음악회!

학교생활에 지친 청소년들이 대학에 가고 성인이 되면 꼭 해 보고 싶은 일의 1순위 배낭여행. 공연장에서 떠나는 배낭여행으로 잠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이탈리아의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베로나 등 주요 도시를 찾아가 그 지역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그 도시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는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음악적 특성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나라별 고유의 문화와 흥미로운 에피소드 등도 함께 소개되며, 실제로 유럽 배낭여행을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즐겁고 감성적인 공연이다.

프로그램

-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돌카마라 아리아
- 로시니: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피가로 아리아
-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은
-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구노: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줄리엣 왈츠 등



청소년 대상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영상으로 품지락



일시	8. 25(목)~11. 24(목) 매주 목요일 13:30~15:30(10회)
장소	부평아트센터 세미나실
대상	관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중학교 재학생
참가비	무로

영상제작 과정 전반을 이해하고 내 안에 담긴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 또는 타인과 소통을 할 수 있다.

- ※ 문의 032) 500-2063
- ※ 프로그램 참여 방법: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www.bpcf.or.kr) 접수



백스테이지 투어



일시	8. 12(금)~13(토) 11:00(2회)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및 달누리극장
대상	전체 관람가
참가비	무로

무대 스태프의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공연장 구성구성을 돌아보고, 공연 제작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공유한다.



어린이가 만드는
어린이 연극학교



일시	8. 13(토)~12. 10(토) 매주 토요일 14:00~16:00(20회)
장소	부평아트센터 대연습실
대상	초등학생
참가비	20만원

어린이들이 공연 제작 과정에 참여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며 마지막 회차 시 전문 공연장에서의 공연을 통해 폭 넓은 예술을 경험한다.



편편 클래식 콘서트

매직&샌드아트



일시	8. 19(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전석 5천원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마술과 샌드아트의 세계”

마술, 샌드아트, 클래식적 접목으로 관객의 관심을 사로잡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비롯한 악기 소개, 성악 협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모든 관객층에 좋은 반응을 얻고 클래식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특히 프로코피예프의 음악동화 <피터와 늑대>를 샌드아트의 생생한 퍼포먼스로 감상할 수 있는 공연.



올라!퍼커션엔!
남미의 열정을 우리에게...!

올라!퍼커션



일시	8. 24(수)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전석 5천원

올라! 퍼커션엔!

남미의 열정을 우리에게!

2016년 브라질올림픽을 맞아, 남미의 악기인 까이샤, 수르도, 팜보린 등으로 구성된 퍼커션 8명과 베이스, 기타, 래퍼, 싱어가 함께하는 한여름의 콘서트.



“예술로 놀고 예술로 만나는~”

여름방학 어린이 연극놀이교실



일시	8. 8(월)~12(금) [3, 4학년반] 10:30~12:00 [1, 2학년반] 13:30~15:0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 1~4학년 / 각 반 13명
참가비	5만원 (5회)
신청	7. 26(화) 10:00~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신청순)

초등학생의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아동의 사회성 함양 및 문제해결능력 등 종합적 사고능력 향상을 목표로 놀이와 이야기를 기반으로 체험해보는 연극놀이 프로그램



생활 속 문화예술

우리동네 문화마실



일시 장소	10. 12(수) 19:30 - 신성세마을금고(십정동) 11. 9(수) 19:30 - 석곡문화회관(산곡동) 8. 31(수), 9. 28(수), 10. 26(수), 11. 30(수) 19:30 - 부평문화사랑방 9. 10(토) 16:00 - 부평공원 10. 22(토) 16:00 - 부평나비공원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무로

부평 관내의 거점별 공간과 근린공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입니다. 우수한 지역예술단체를 지역주민과 '내집 앞 5분 거리'에서 만나게 하는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앙상블 다나루

어느 멋진 날



일시	8. 19(금)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전석 1만원
출연진	앙상블 다나루 (GUEST 뮤지컬 배우 최형석, 월드뮤직그룹 세움 등)

부평아트센터 상주단체 '문화공작소 세움'의 대표 아티스트 그룹 여성 5인조 국악그룹 '앙상블 다나루'의 <어느 멋진 날>은 국악을 보다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하며, 다양한 시도와 젊은 음악인들의 재기 발랄한 도전을 엿볼 수 있는 공연이다.

스페인일레니엄합창단 초청내한공연
부평과 함께하는 2016에스파냐아리랑



일시	8. 18(목)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지휘 임재식, 스페인일레니엄합창단, 부평구립여성합창단



일시	8. 18(목) 20: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출연진	지휘 임재식, 스페인일레니엄합창단, 부평구립여성합창단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6년 부평아트센터 하반기 브런치 콘서트 클래식에 빠지다

일시	9. 29(목) 11:00 해피버스테이 바호 10. 27(목) 11:00 해피버스테이 쇼펡 11. 24(목) 11:00 세상의 모든 녹턴	넷째 주 목요일 11시에 만나는 부평아트센터의 대표 콘서트, 예술을 통해 영감과 영감을 받았던 음악을 함께 만나는 특별한 시간!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전석 1만 5천원	공연 종료 후 커피와 머핀을 제공합니다.



클래식에 빠지다, 바흐

9. 29(목) 11:00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330번째 생일, 위대한 음악가의 생일파티에의 초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시대를 앞서 진보적이고 화성적이었던 바흐의 명곡은 수많은 음악가에게 음악적 영감을 주었다. 비올리스트 김상진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들어보자.

프로그램

인헌선 1번 C장조 BWV 772, 첼로 무반주 조곡 3번 C장조 BWV 1009 외



클래식에 빠지다, 쇼팽

10. 27(목) 11:00

낭만파 대표주자 쇼팽의 205번째 생일 파티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프레데릭 프랑수와 쇼팽. 쇼팽의 인생과 더불어 그의 곡들을 함께 들어보고 쇼팽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다가와 있는지 알아본다.

프로그램

쇼팽 4개의 즉흥곡 1번&4번, 서주와 화려한 폴로네이즈 외



클래식에 빠지다, 세상의 모든 녹턴

11. 24(목) 11:00

존 필드에 의해 태어나고 쇼팽에 의해 꽃피워진 녹턴.
아상곡이라는 뜻의 녹턴, 녹턴이 만들어진 초기부터 현대까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뿐만 아닌, 우리가 몰랐던 녹턴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를 듣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프로그램

존 필드 녹턴 5번 내림 나장조, 리스트 사랑의 꿈 외



우수클래식 프로그램

백건우의 선물



일시	9. 24(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VIP 8만원, R석 6만원, S석 5만원, 시아장에서 3만원

데뷔 60주년을 맞은 피아니스트 백건우!
수십 년간 함께한 팬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프로그램 선정!
백건우는 60여년 자신의 음악인생을 함께해 온 관객들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역시 독주회로 만들었다. 2016년 9월, '백건우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자신을 아껴준 모든 관객과 뵈하고자 한다.



그림 같은 사진, 사진 같은 그림

사진의 회화성



일시	9. 22(목)~10. 9(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문화가 있는 수요일 <아티스트 토크> 9. 28(수) 18:00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무료

극명한 사실주의적 화면 구성을 추구하는 Hyperrealism(하이퍼리얼리즘) 작품을 통해 사진과 회화의 발현되는 이미지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이 될 것이다.



부평하모니프로젝트

소리를 더하다



일시	9. 3(토)~11. 12(토) 매주 토요일 14:00~17:00(10회)
장소	부평아트센터 중 연습실
대상	2인 이상 가족단위
참가비	무료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합창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여가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가족 간 이해의 기회를 갖는다.



성인대상 사진프로그램 아카데미

사진과 이미지

일시	9. 6(화)~11. 1(화) 매주 화요일 19:30~21:30(8회)
장소	부평아트센터 스튜디오C
대상	성인
참가비	8만원

카메라 메커니즘 및 영상언어와 이미지 강의를 통해 촬영하고, 일상을 기록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강의로 풀어낸다.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과정

청년예담_청년 예술을 담다

일시	9. 7(수)~12. 21(수) 매주 수요일 19:00~22:00(12회)
장소	부평아트센터 호박홀
대상	문화예술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청년
참가비	10만원

문화예술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예비 기획자를 대상으로 현업에 필요한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역량 개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Movement for Sound '원 ONE'



일시	9. 9(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전석 5천원

청백연희단의 대표 공연 장르 중 하나인 Movement for Sound <원 One>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음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one) 되기를 원(願) 하는 '월드 뮤직 프로젝트'이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꼭두각시놀음'을 재창작한 색다른 재미와 멋의 종합 예술극

노마드 <돌아온 박첨지>



일시	9. 7(수)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전석 5천원

노마드 <돌아온 박첨지>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이자 중요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되어 있는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관객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놀이적, 재단적 구성요소를 재치있게 그려냈다.



아름다운 은빛 바람을 타고 다함께 추억 속으로 떠나요~

바람을 타고 떠나는 추억여행



일시	9. 21(수)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전석 5천원

바쁜 현대 생활로 잊고 지내던 옛날 추억을 떠 올리고 회상하며 각박한 현대 생활로 뒤돌아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생활을 뒤돌아 보고자 이런 음악회를 기획하였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따리 오르프



일시	9. 1 ~ 11. 24 매주 목요일 10:30~11: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4~5세 유아+엄마 / 10쌍
참가비	6만원 (12회)
신청	8. 23(화) 10:00~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선착순)

독일 음악가 '칼 오르프'의 이론을 기반으로 노래, 악기 연주, 신체표현 등 체험형 활동으로 구성되는 유아와 엄마가 함께 참여하는 음악교육프로그램이다.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랑방 인형극단

일시	9. 8~12. 1 매주 목요일 16:00~18:0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 2~6학년 / 12명
참가비	12만원 (12회)
신청	8. 30(화) 10:00~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선착순)

초등학생이 이야기와 오브제를 직접 만들어 발표하는 인형극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진의 지도를 통한 수준 높은 인형과 극 제작으로 실제 무대 위 공연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춤추는 사랑방 '렛츠 탭'

일시	9. 20~12. 6 매주 화요일 (12. 6 휴반 공연 발표) [초등반] 16:30~17:30 [성인반] 19:00~20: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반] 1~6학년, 12명 [성인반] 12명
참가비	12만원 (12회) ※ 탭슈즈 별도 구매
신청	9. 6(화) 10:00~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선착순)

낯설고 어려운 것 같은 춤에 대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누구나 쉽게 즐기고 움직일 수 있도록 탭댄스의 기초부터 안무까지 지속적으로 익혀 무대 발표로 마무리하는 프로그램



공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를 프로그램

어디어디 숨었다

일시	9. 24~11. 26 매주 토요일 10:00~12: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초등 1~2학년 / 15명
참가비	무료
신청	9. 13(화) 10:00~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선착순)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상주단체 공연



조운성, 성민제 듀오 콘서트

Unplugged



일시	10. 22(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출연진	성민제(더블베이스), 조운성(재즈 피아노), 특별 게스트 보컬

클래식과 재즈의 기발한 만남

허비 행콕, 웨인 쇼터의 주먹을 받은 천재 재즈 피아니스트 조운성, 세계가 인정한 더블베이스의 황태자 성민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요한 마티아스 스페르거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와 러시아 구세비츠키 더블베이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 한 후 국내외적으로 더블베이스 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성민제와 한국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천재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프로듀서 조운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행고의 고장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테마로 익숙한 클래식 음악을 재즈 버전으로 재해석하였다. 그동안의 색다른 무대가 어떨지 한층 기대된다.

프로그램

- 아르니 예길슨_더블베이스 소품
- 모차르트_피아노 소나타 C장조 베리예이션, 터키 행진곡
- 비제_카르멘 모음곡 · 하바네라 & 두우사의 노래
- 존 윌리엄스_영화 사브리나 메인 테마
-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_ So danco Samba
- 김진룡_남령열차
- 몬티_프레보 외



오리지널 앤 모던

제2회 부평밴드페스티벌



일시	10. 14(금), 15(토)
장소	부평공원, 부평3동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무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으로 구성되어 음악의 집중도를 높이고, 누구나 편안하게 즐기며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다양한 아티스트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예술적 체험공간을 함께 열어 음악 페스티벌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부평의 대표 음악축제로 기대를 모은다.



웃고 웃다 배꼽이 빠졌다고 소문난 명품극

소문

일시	10.14(금) 20:00 15(토)~16(일) 16: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전석 2만원

악성 댓글과 근거 없는 억측들이 난무하는 오늘날, 진정성 없는 '소문'에 매몰 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습을 돌아본다.



제1회 부평구립풍물단 정기연주회

풍년의 가을 소리

일시	10. 18(토) 19:30
장소	부평아트센터 야외광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무료
출연진	부평구립풍물단, 전통타악그룹 '태극'



부평영아티스트 1기

POP Prize 관람객이 뽑은 작가!

김수진 Sugar Time

일시	10. 13(목)~18(화)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무료

2015 부평영아티스트 1기 선정작가 중 POP Prize 관람객이 뽑은 작가 김수진의 개인전



부평영아티스트 2기 선정작가 전

Perennial Inspiration



일시	10. 21(금) ~ 11. 6(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무료

예술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표현하는 젊고 유능한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신념과 용기를 선사하는 부평구문화재단의 공모전 <부평영아티스트>.



시각예술 프로그램

이야기 드로잉

일시	10. 1(토)~12. 3(토) 매주 토요일 11:00~13:00(10회)
장소	부평아트센터 스튜디오C
대상	성인
참가비	8만원

좋아하는 노랫말이나 책 구절을 보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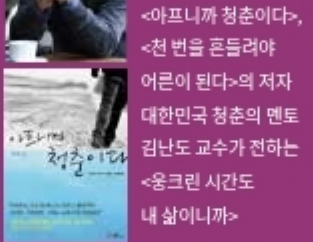
호박 HoBAC데이트

극장 책을 읽다

일시	10. 29(토) 15:00, 11. 19(토) 15: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전석 1만원

10. 29(토) 15:00
응크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김난도 교수의 특별한 메시지!

서든대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명강의의 주인공!



프로그램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특별 게스트



국내 최고의 베이스!
중후한 저음의 매력을 선사할 <브리베이스>

눈과 귀를 열어 극장에서 저자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 극장에서 작가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풍성한 음악으로 마음을 채워줄 부평아트센터 호박데이트-극장 책을 읽다.

11. 19(토) 15:00
한국 뮤지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주도한 대한민국 대표 프로듀서 박명선!

뮤지컬 '맘마미아', '시카고', '아이다', '아리랑' 연극 '레드', '헬릿', '푸른날에', '나와 아버지와 동매화' 등 제작하는 공연 마다 흥행열풍을 일으켰고, 국내 최장기 공연 및 최다 공연, 최다 관객 동원, 최대 매출 등 전후후무한 기록을 세운 공연계 미다스의 손. 끝없이 도전하는 국내 최고 공연 프로듀서와의 특별한 시간!

프로그램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특별 게스트

뮤지컬계
국내 최고의 디바!
<최정원>



전용준 그룹 단독 공연

Chromatic DNA

일시	10. 14(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전석 5천원
출연진	피아노-건반: 전용준, 드럼-김영진, 기타-하범석, 색소폰-송하철, 베이스-김대호



젊음의 패기로 똘똘 뭉친 뮤지션들이 들려주는
강렬한 퓨전재즈의 향연
개인 아티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 전용준은 Zion-T와 알파대고, No make up 등의 작곡으로도 참여한 바 있는 실력파로 이번 공연에서는 정통 재즈에서 벗어나 락의 요소와 재즈적 요소가 적절히 배합된 공연을 선보인다. 재즈에 크게 매력을 갖지 못 했던 사람은 물론, 재즈 마니아, 락의 대한 향수를 느끼고 싶은 관객 모두를 만족시킬 선물 같은 공연이 될 것이다.



음악의 흥미

아나야의 목은지 걸질이 콘서트



일시	10. 5(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전석 5천원

79인이 만들어내는 서정적인 멜로디의 파스칼, 어머니의 기억, 어린 시절의 추억, 사랑, 하루의 일상 등이 가사로 된 아나야의 곡은 모든 세대에게 정서적 교감을 만들어 내어 위로와 여운을 준다.



기획공연

연희집단 THE 광대 '자라'



일시	10. 19(수)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전석 5천원

잠을 자야, 꿈도 꾸고
꿈을 깨야, 자라도 만나고
자라를 만나 봐야, 놀래 자빠져도 보고
놀래 자빠져 봐야, 뒤도 돌아보고
뒤를 돌아봐야, 다시 꿈도 꾸고

전통연희 중 '재담'을 모티브로 한 <자라>는 연희집단 The광대가 처음으로 시도한 1인으로, 전통민요 자랑가, 탈춤과 재담 몸짓, 인형놀이 등을 극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세대를 아울러 모든 관객층에게 익살스럽고 풍성한 재미를 안겨줄 것이다.



사랑방에서 만나는 영화 속 예술

영화, 예술을 만나다



일시	10. 8(토)~11. 12(토) 매주 토요일 13:30~15:30 (영화 상영) 15:30~18:00 (강의)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대상	성인, 17세 이상 청소년 50명
참가비	무료
신청	9. 27(화) 10:00~ 부평구문화재단 홈페이지

미술, 음악(재즈), 사진 등 예술을 소재로 한 영화를 함께 관람한 후, 해당 예술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예술 감상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부평아트센터 상주단체 세움 SE'UM

KOREAN BREATH



일시	10. 8(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평점 만점, 워싱턴 DC 재즈페스티벌, PAMS Choice, APaMM 선정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초청작
2015년 한국대중음악상 2개 부문 노미네이트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도와 음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는 [세움 SE'UM]은 전통 장단과 재즈를 기반으로 '세움'만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공연 <Korean Breath>는 '세움'의 대표적 레퍼토리 공연으로 '세움'만의 음악세계와 독특한 질감, 호흡을 엿볼 수 있다.



* 프로그램과 출연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전시



예술교육



문화사랑방 공연



문화사랑방 예술교육



상주단체 공연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



일시	11. 11(금) 20:00, 12(토) 16:00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전석 2만 5천원

단체관람을 통해 극장을 찾았던 학생이 교사가 되어 다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극장을 찾게 하는 매력은 세탁소만이 지닌 따뜻한 감동이 아닐까? 탁 찬 대본, 연출과 연기, 극단 모시는 사람들의 작품에는 '연극'과 '사람'에 대한 예정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모두 함께 즐기는 무료음악회

2016년 로비음악회 12시 15분

일시	11. 12(토) 12:15, 12. 3(토) 12:15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로비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무료



제7회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꿈꾸는 아이들

일시	11. 19(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무료



부평구문화재단 창작음악극 당신의 아름다운 시절

일시 장소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11. 26(토) 20:00
	27(일) 14:00, 18:00
	29(화) 20:00
	30(수) 16:00



인선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12. 8(목)~9(금) 20:00
10(토) 14:00, 18:00
11(일) 16:00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국립극장 - R석 6만원, S석 4만원, 부평아트센터 - R석 4만원, S석 3만원, 시아장에서석 2만원



한문연 방방곡곡 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양방언 EVOLUTION 2016

일시	12. 17(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시아장에서석 2만원



3rd 부평옥션

화이트세일



프리뷰	11. 17(목)~11. 21(월) 10:00~18:00
경매 일시	11. 22(화) 19:00
경매 후 전시	11. 23(수)~11. 27(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무료



메모리얼 전시

Special B

일시	12. 8(목)~12. 18(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부평아트센터 갤러리꽃누리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무료



엄마 손잡고 나들이 갈 때 들어본 노~래 모차르트의 마법 바이올린

일시	11. 18(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전석 5천원



색다른 재미와 맛의 종합 예술극

이즘(I.S,M) 상상 그리고 발현

일시	11. 9(수)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전석 5천원



가족 인형극

파란토끼 물루

일시	11. 23(수)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전석 5천원



어린왕자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국악, 관객에게 새로운 동화를 선물하다!

어린왕자의 지구보고서

일시	12. 9(금) 19:30
장소	부평문화사랑방
관람연령	전체 관람가
관람료	전석 5천원



부평아트센터 상주단체 부평울스타빅밴드

The Swing & 에스캄 토크콘서트

일시	11. 5(토) 17:00
장소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관람연령	8세 이상 관람가
관람료	무료



2016 하반기 시즌 패키지

특별한 혜택 <테마별 선택 패키지>

브런치 패키지 - 클래식에 빠지다

- 해피버스데이 바흐
9. 29(목) 11:00
 - 해피버스데이 쇼팽
10. 27(목) 11:00
 - 세상의 모든 녹턴
11. 24(목) 11:00
- 세 작품 모두 선택 시 30% 할인

뮤직 패키지

- 음악으로 떠나는 유럽배낭여행-이탈리아 편 청소년음악회
8. 11(목) 19:30
 - 백건우의 <선물>
9. 24(토) 17:00
 - 조윤성, 성민재 듀오 콘서트 <Unplugged>
10. 22(토) 17:00
 - 양방언 EVOLUTION
2016 12. 17(토) 17:00
- 공연 세 작품 선택 시 30% 할인
모두 선택 시 40% 할인 + 음악앨범 증정

통합 패키지

2016년 하반기 기획 공연 5편 이상 선택 시 40% 할인

<스페셜 패키지>

스페셜 얼리버드 티켓

- 8. 10(수)까지 패키지 구매 시 기존 할인율에 추가 10% 할인!
- * 하반기 시즌 패키지 구매하신 모든 관객에게 부평구문화재단 정기간행물 <보다>와 캐릭터 볼펜을 드립니다.

2016 하반기 시즌 패키지 예매 방법



- **엔티켓 enticket**
전화예매 1588-2341 (온라인 예매 불가)
예매수수료 예매 건당 1,000원
고객 부담



- **예매 취소**
마감시간 : 구입하신 패키지의 해당 첫 공연 관람일
전일 평일 오후 5시,
토·일 공연은 금요일 오후 5시
(공연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날 평일 오후 5시/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금요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적용)

- 자세한 환불 규정은 엔티켓 홈페이지 참조 enticket.com



- **공연 일정 변경**
해당 공연 3일 전 오후 5시 (3일 전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오후 5시)
- 공연 일정 변경 시, 해당 공연의 좌석이 매진일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시야장애석은 패키지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튼튼한 후원부평구문화재단후원회

부평구문화재단 후원회는 부평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부평구민들이 문화예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하고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아름다운 문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후원회 신청방법

- ① 방문신청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② 우편신청 인천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내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 ③ 신청문의 032-500-2081

후원회원 등급 및 예우

기업 / 개인	해누리 (5천만원)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2회)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0장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2회)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4회)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50%)	평생회원
	달누리 (2천만원)	기업 브랜드 타이틀 제공 (기획공연에 한해 연간 1회)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30장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후원사 홍보 부스 설치 (기획공연시 연간 1회)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3회)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40%)	
	꽃누리 (1천만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20장 공연 및 축제 프로그램 기업명 표기 세미나실, 커뮤니티 홀 무상 대관 (연간 2회)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별누리 (5백만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개인	구름 (3백만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10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30%)	5년
	외 (1백만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6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5년
	가람 (5십만원)	기획 공연 입장권 연간 4장 기획 공연 오픈 전 안내, 할인 및 우선 예매적용 (20%)	3년

기본예우 홈페이지 후원자 기업명 표기, 홈페이지 후원회 페이지 운영 (소식 업데이트), 해누리공연장 로비 벽면 회원 명판 부착, 후원회 카드 발행

후원해주시는 분들

꽃누리	별누리	구름	외	가람
최도원 대원인물(주) 대표이사	홍종국 삼산월드컨벤션센터 대표	박인덕 (주)상보인터내셔널	맹익재 클라이젠(주) 대표이사	신희석 아침을여는사람들 대표
노태순 씽크벙고 대표	박홍식 부평역사(주) 대표이사	대표이사	허남영 (재)세종문화회관 팀장	윤대기 법무법인 토월 변호사
성낙경 (주)한빛기술 대표이사	함국홍 부원산업(주) 대표	박석범 인그리디언코리아	이해민	최장석 온성산업(주) 대표
서태호 (주)난다 고문	최주승 (주)대경아이스 대표	유한회사 이사	박옥진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권복환 1급부평자동차공업사
김영무 (주)하온아텍 대표이사	배정태 더메이스샵 대표	배수진 (주)승우엔지니어링	강경애 리디안 우쿨렐레	대표
이희재 (주)우성아이비 대표이사	김용택 온세계교회 GVC 목사	대표이사	오케스트라 단장	안종영 정수미크론 대표
정규경 의료법인 한길안과	최백경 ㈜경인 대표이사	김효배 북구환경(주) 대표이사		신종백 삼정1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사장	이승희 (주)두전금형 대표이사	전봉운 부평환경(주) 대표이사		심수연 부개3동 주민자치위원장
이경환 (주)비에이치 대표이사	가중권 ㈜연우 대표이사	한재권 동일환경(주) 대표이사		조정애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	심수일 삼정가공업㈜	안용현 한국그린환경(주)		박영옥 삼우광경 대표
	대표이사	대표이사		오종석 한국동운(주) 대표이사
		민병권 (주)평화환경 대표이사		한유순 광원아트홀 관장
		정해자 ㈜삼원환경 대표이사		정지연 광원건설(주) 회장
		권영조 ㈜영메디칼바이오		이계찬 지인조경㈜ 대표이사
		대표이사		김유환 관세법인 사인 관세사
				황영희 가현텍스 세무사



시민회원(CMS)약정 안내

약정금액

- ① 월단위 약정 금액
- ② 1구좌 5,000원 (5구좌까지 가능)
- ③ 기타 희망금액 약정 가능

기부자 예우

- ① 연례보고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 사용내역 공개
- ② 정기간행물과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 공개(비공개로 신청 가능)
- ③ 부평아트센터 기획공연 20~30% 할인

지정내용

기부금 사용을 부평구문화재단(후원회)에 일임하여, 별도 조건없이 기부

관련문의

부평구문화재단 마케팅팀 032-500-2081

CMS 운영절차

